# 프랑스 言語學의 傳統과 「코펜하겐」의 言語學(I)

## —理論의 比較分析 硏究—

朴 亨 達

**0.** 한 學問의 學派(=理論)를 논의하는 데는, **比較**라는 觀點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특정의 學派(=理論)를 있는 그 대로 논의하는 방법이 그 첫째 방법이고, 하나의 學派를 다른 學派(=理論)와 **比較**하여 논의하는 방법이 그 둘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상 첫째의 논의 방법을 **比較를 하지 않는 논의 방법**이라고 부른다면, 둘째의 논의방법은 **比較를 하는 논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의 논의 방법에서의 **比較**라는 用語를 더 자세히 볼 때, 이 **比較**라는 用語는 다시, 그 **比較**가, **比較**의 대상이 되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거/배제**한다는 觀點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必然적인** 하나가 **必然적이 아닌(=恣意적인)** 다른 하나를 **제거/배제**한다는 觀點에서의 **必然적인 比較**[1]와, 그와 반대로, **必然적이 아닌(=恣意적인)** 하나만을 보고, **必然적인** 다른 하나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恣意적인 比較**[1], 즉 **必然적이 아닌(=恣意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比較**, 라는 근본적으로 相反되는 두 가지의 **比較**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처음에 위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學派(=理論)의 논의 방법, 즉 **比較를 하지 않는 논의 방법**과 **比較를 하는 논의 방법**은, **必然적이 아닌(=恣意적인) 比較**와 **必然적인 比較**라는 내용으로 더 정밀화 시켜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되풀이 해서 말하면, **恣意적인 比較**는, 恣意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比較** 즉, **恣意적 學派(=理論)**의 테두리 안에서의 **歷史적 共時적 比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恣意的 學派(=理論)**를 있는 그대로 논의하는, **比較를 하지 않는 논의**라고 할 수 있고, **必然적인 比較**는, **必然적인 學派(=理論)**가 **恣意적인 學派**를 **제거/배제**한다는 觀點에서의, **比較를 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논의하려는 言語學에서의 學派(=理論)의 논의도, **必然적인 學**

[1] 뒤(pp. 454-456)의 **必然적 比較/恣意적 比較** 項 참조. **必然적=異方向적/恣意적=等方向적**(이하 모두에 해당함) 개념에 관여하는 뒤(pp. 461-2의 註 : 3-4) 참조.

派(=理論)와 **恣意적인 學派**(=理論)를 **比較**하는 觀點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言語學에서의 (必然적)**理論의 連續體**[2]를 정립하고, 그에 대응되는, 理論의 설명에 사용되는(必然적) **言語의 連續體**를 정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1.1.** 「프랑스」 言語學——이 言語學은 프랑스의 언어학자로서 그 출생의 年代順으로는 : G. GUILLAUME(1883~1960), L. TESNIÈRE(1893~1954), E. BENVENISTE(1902~1969)와 같이 배열될 수 있고, 그들 각각의 독자적 관점 때문에, 현재의 프랑스 언어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사람의 언어학자를 논의하기 위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1]

이들 세 사람의 학자들을 그 계보에 따라서 분류하면, GUILLAUME과 BENVENISTE는 다 같이 A. MEILLET의 제자라는 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겠고,[2] TESNIÈRE는 SAUSSURE의 직접계승자 또는 BALLY의 Genève학파의 成員이라기보다는 HUMBOLDT로 부터 비롯한 합리성과 보편성의 언어관(approche rationaliste et universaliste du langage)의 영향을 받았다[3]는 점에서 위 두 학자와는 계보상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必然적 觀點/恣意적 觀點**[4]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는, GUILLAUME과 TESNIÈRE를 하나로 묶고, BENVENLSTE를 따로 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GUILLAUME, TESNIÈRE, BENVENISTE의 순으로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1.2.** 「코펜하겐」 言語學——이 言語學은 Louis HJELMSLEV(1899~1965)와 Hans Jørgen ULDALL(1907~1957)의 두 사람을 主軸으로 하여 「덴마크」에서 形成된(1931년에 HJELMSLEV를 중심으로 한 젊은 덴마크 言語學들이 「코펜하겐」 言語學會를 창설하였다) **形式言語學**(glossematik/glossematics/glossématique)을 말한다. 이 言語學의 生成의 動機 내지 主張은, 넓은 의미에서의 **言語범주**(=文法범주/音韻범주)를 **意味內容**에 의해서가 아니라 **形式** 즉 **統合적 관계**에 의해서 定義해야 한다는 데 있다.[5] 따라서, 意味內容에 力點을 두는 SAUSSURE의 **記號**(signe)에 대하여는 **超記號**(figure)를, 역시 또 **知적 意味**에 力點을 두는 TROUBETZKOY의 **프라그** 音韻論에서의 **音韻**에 대하여는 **超**

---

[2] 뒤(續 〈=完〉편)의 도표 참조.

[1] 뒤(續 〈=完〉편)의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 PÊCHEUX(1982), p. 5에서는 "프랑스 言語學의 傳統"(les traditions linguistiques françaises: Tesnière, Guillaume, Benveniste...)이라고, 이들 세 사람을 들어, 표현하고 있다.

[2] 뒤(p. 459)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WAGNER(1973), p. 8;
뒤(續 〈=完〉편)의 (Ⅲ)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JACOB(1984), p. 37.

[3] 뒤(續 〈=完〉편)의 (Ⅲ)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 RUBATTEL(1982), p. 151.

[4] 뒤(pp. 448-449 등)의 **必然적 觀點/恣意적 觀點** 項 참조.

[5] 뒤(續 〈=完〉편)의 (Ⅱ)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 JØRGENSEN(1975), pp. 114-115 참조.

**音韻**(glossème)[6]을, 또, Saussure의 **兩分法**에 대하여는, **三分法**[7]을 내 세운다. 그러나 그 主張은 사실상, Saussure 또는 **프라그** 학파의 테두리 안에서의 主張이기 때문에, 흔히 Hjelmslev(또는 「코펜하겐」 形式言語學)를, Saussure의 충실한 繼承者,[8] 또는 (미국의 分析主義와 比較되는) 「덴마크」 分布主義[9], 라고 부르거나, 또 그렇게 취급하는 일이 있다. 이와 같이 **恣意적**(**心理적**/**主觀적**)인 **意味**(=**非形式**)의 테두리 안에서의 **客觀적 形式**을 主張[10]하기 때문에, 역시 같은 **恣意적 意味**의 테두리 안에서의 **主觀적 形式**을 主張하는, Benveniste와 같은 **恣意적 觀點**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11] 앞에서, 「프랑스」 학파의 세 사람 중 Benveniste에 이어서, 「코펜하겐」 학파의 Hjelmslev/Uldall을 논의의 순서로서 배정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 그 근거를 둔 것이다.

**2.1.** Gustave Guillaume(**1883~1960**)[0]: 그의 理論은 매우 어렵고 또 現代言語學에서 그 位置를 分類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支持者들은 그의 理論에 열열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에, 그의 반대자들로 부터는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냉대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Guillaume은 그의 강의를 듣는 소수의 核心적인 그의 제자급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言語學者들의 理論의 소개에서 제외되거나, 비록 그 理論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理論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 **첫째**로는 각자가 (G.의 理論의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자기의 主張만을 일삼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基準理論을 중심으로 다른 理論들을 比較하는 比較理論言語學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Guillaume의 理論의 核心을 파악하지 못한데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G.의 理論의 목표는 그 당시의 歷史

---

[6] 뒤(續 〈=完〉편)의 (Ⅰ) Hjelmslev/Uldall **著書目錄**: Hjelmslev(1943/1961/1968), chap 12 및 20 참조.

[7] 앞(註: 3)의 **目錄**: Hjelmslev(1966/1970), pp. 55-70/pp. 32-44 참조; 앞(註: 3)의 **目錄**: Coseriu(1952) 참조.

[8] 뒤(p. 460)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Le langage(1973), p. 184 참조.

[9] 뒤(p. 459)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Guiraud(1985), p. 69 참조.

[10] 앞(註: 3)의 **目錄**: Hjelmslev(1973), p. 157 참조.

[11] 뒤(續 〈完〉편)의 (Ⅰ) Benveniste **著書目錄**: Benveniste(1974), p. 57 note 참조.

[0] **獨學者**; É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高等學術院)에서 A. Meillet, Louis Havet 등의 강의 청강; 1919년에 위 資格論文: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冠詞와 그것의 불어에서의 해결에 관하여)제출; Meillet의 유언과 J. Vendryes, Benveneste의 추천으로 위 學術院의 강의 담당(1938~1960): 拙稿(1987), Gustave Guillaume의 心理力學論과 比較理論言語學적 관점(人文논총: 18, pp. 13-14) 참조.

比較文法의 방법 즉 구체적인 음성사실의 比較를 脫皮하여 言語의 보편적인 傾向을 포괄(支配)하는 一般文法(言語學)의 定立에 있었다. 즉 言語의 기본 요소인 **어휘**와 **형태**를 따로 따로 떼어서 보는 **불완전한 一致의 位置**가 아니라, 그 둘의 **완전한 合致의 位置**를 그 출발점으로 하는 소위 **位置言語學**(linguistique de position; positional linguistics)의 건설에 있었다. 한마디로 그것은 **脫傳統言語學**(linguistique transtraditionnelle)을 지향하는 것이었다.[1] 그러므로 G.의 理論을 논함에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안 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2]고 생각된다. 그러나 G.의 理論 형성을 둘러 쌌던 당시의 상황을 직접 해당 연구자들의 해설을 통하여 알아 보는 것도, G.의 理論의 특징을 이해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의 직계 스승인 MEILLET가 그의 스승 SAUSSURE의 영향을 안 받았으며, 따라서 G.도 SAUSSURE의 영향을 안 받았다[3]는 결론과 관련하여 :

먼저 MEILLET가 SAUSSURE의 理論을 잘못 전파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G. MOUNI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원래가 比較言語學者인 그는 다음과 같은 아주 모순된 공식을 강요한다 :《記述文法과 歷史文法은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 혹은 또 :《그리하여, 특수어의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는, 착수된 연구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記述적 측면 또는 歷史的 측면만을 돋보이게 하는, 記述적인 동시에 歷史적인, 단 하나의 文法分野만이 있다》. 그리고 또 그는 (1913년에) 말하기를,《이들 두 유형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만도 한 주장이지만, Saussure의 생각의 방법론적·이론적인 모든 利點이 살아져 버렸다. Saussure의 고독의 주요 요인중의 하나는 Meillet의 (깊은) 이해부족이었다.[4]」

또 WUNDERLI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Guillaume의 제자들이 언제나 누구 보다도 Antoine Meillet와 같은 매우 중요한 학자의 의견에 토대를 둘 수는 있다. 그는 Guillaume의 Temps et verbe《時制와 動詞》(1929)의 刊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

(…)우리는 '一般文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런데, 이

---

[1] 뒤(p. 458)의 (Ⅰ) GUILLAUME 著書目錄의 1) 主著의 GUILLAUME(1929), p. 11 이하 참조 ; 뒤(p. 459)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VALIN(1973), pp. 11-12; VALIN(1975), p. Ⅶ; WILMET(1978), chap. Ⅰ; 뒤(p. 460)의 (Ⅲ)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 FUCHS, C., LE GOFFIC, P. (1975), pp. 52-61; MOUNIN(1972), p. 9; 뒤(續 〈=完〉편)의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JACOB(1984), p. 37, 참조 ; 拙稿(1988), 位置言語學과 統辭論(人文논총 : 20)(1988), 참조.

[2] 뒤(p. 459)의 (Ⅱ)의 1)의 **目錄** : WUNDERLI(1974), p. 60 및 뒤 註(10) 참조.

[3] 뒤(p. 458)의 (Ⅰ) GUILLAUME **著書目錄** : GUILLAUME(1973), p. 28.

[4] 뒤(續 〈=完〉편)의 (Ⅱ)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 MOUNIN(1968), pp. 48-49.

러한 학문이 이룩되려면 Guillaume氏가 사용한 바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책은 F. de Saussure가 말하는 言語《langue》를 이해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연구임에 틀림없다…. Guillaume氏가 보는 관점은 새롭다….[5]

Saussure의 한 제자의 붓으로 부터의 이 평가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 사이의 차이는 나에게는 곧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평가가 그 당시의 아주 중요한 인구 어학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혹시 그 자신이 1909년에(은행원으로서의) Guillaume을 발견하고 그후 그를 교육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이 그의 판단의 객관성을 막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보다 더 적극적인 평가는 드물다.[6]

이어서 또:

「(…) Saussure의 친구요 제자인 Meillet 자신도, 기회 있을 때 마다 Cours를 칭찬하기는 했지만, Cours에 대하여 넓게 이해를 못한 형편이었다.; 사실상 그는 Cours의 양분법: 共時態/通時態 그리고 言語(langue)/말(parole)도, 또 그 밖의 어떤 다른 成果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Mounin, 1968:p.48 이하 참조). 비록 Meillet가 그의 제자 Guillaume으로 하여금 Cours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는 했지만, 이 저서에 대한 특히 집중적인 分析과 또 Saussure의 관점의 受容을 그에게 열어 주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Meillet의 다른 하나의 제자 Marcel Cohen은 그의 스승의, Cours에 대한 근본적으로 拒否적인, 태도를, 오늘날 까지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으며, Saussure에 대한 비판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Mounin 1968:49, 각주 12를 참조)[7]

MEILLEIT의 SAUSSURE의 受容이 소극적이었다는 위의 논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MEILLET 이외의 프랑스의 학파에서의 SAUSSURE의 受容태세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피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인용을 첨가하면:

「…우리가 Meillet 학파 이외의 프랑스에서의 초기의 Saussure의 受容을 알아 보면 더욱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Jules Gilliéron, Albert Dauzat, 등등의 인물 곁으로는 Cours가 거의 흔적도 없이 지나쳐 버렸다. 1930년대 말에야 비로소 Robert-Léon Wagner, Émile Benveniste, Georges Gougenheim...에게 있어서 어떤 反省이 나타나는 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反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간접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 反省들은 각각의 직접적인 Saussure의 分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예컨대 Wagner에게 있어서는) Guillaume을 통해서 혹은 또——무엇 보다도 우선——**프라그** 파와 **코펜하겐** 파를 통해서 仲介되었다.[8]」

---

[5] 뒤(p.460)의 (Ⅲ)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MEILLET(1931), pp.1-2.
[6] 앞(註: 2) WUNDERLI(1974), pp.28~29.
[7] 앞(註: 2) WUNDERLI(1974), pp.29-30.
[8] 앞(註: 2) WUNDERLI(1974), p.30.

그러면 다음에 GUILLAUME이 SAUSSURE의 영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해서 GUILLAUME의 제자인 Roch VALIN의 말을 들어 보기로 하자 :

「(…) 1919년에, Meillet와 만난지 10년 후에, Gustave Guillaume은 '冠詞의 문제'를 출판하였다. 이 저서는 사실상 Saussure의 '一般言語學 講義'의 출판년도인 1916년 이전에 완성된 것이므로, 이 사실은 Saussure의 사상의 영향이 거기에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Saussure의 생각의 큰 윤곽——共時態와 通時態, 言語(langue)와 말(parole), 記號(signe), 指示要素(signifiant), 被指示要素(signifié)——가 거기에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설명해 준다. Gustave Guillaume이 高等學術院에서의 그의 강의에서 Saussure의 後裔와 後世代로서 자리 잡으려고 시도한 것은——(너무나 완만히 알려지는 그의 저술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우리의 一念에서) 우리의 견해가 틀렸는지는 모르나——사실상 훨씬 뒤의, 그리고 그의 눈에 띌어 닥친 分析의 교정작업 과정에서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의해서 착수된 연구계획은 단숨에 나타나며, 끝까지 두드러지게 남도록 되어 있었다. G. Guillaume이 애초부터 시도한 것은——그가 그것들에 대하여 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항상 대단한 찬미를 아끼지 않았던, 큰 觀察科學들을 모형으로 하여——言語活動의 진정한 現象學으로 정착하는 동시에 言語活動에다 그것의 참된 次元 즉 위에서 우리가 본 바 人類學的인 次元을 復原하는 일이었다.[9]」

다음에는 GUILLAUME이 MEILLET와 SAUSSURE의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Marc WILMET의 分析에서 인용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SAUSSURE와 GUILLAUME의 관계에 대해서 :

「Gustave Guillaume이 Saussure 보다 앞선 선구자들 속에 꼽힐 수 없다는 것은 첫눈에 알 수 있다. 그 傳記들이 削除될 수 없을 만큼 그와 반대된다.

Guillaume은 1883년에 Paris에서 출생했다 : Saussure는 26세로서 이미 '母音에 관한 覺書'의 유명한 저자였다. 1906~1907, 1908~1909, 그리고 1910~1911에 Genève에서 발표된 스위스의 언어학자의 Cours는 1916년 그의 사망 3년 후에 그리고 Guillaume 쪽이 '冠詞의 문제'를 쓰기 3년전에 刊行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앙케트를 계속함은 無理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Guillaume이 1911, 1912 및 1913에 F(rançois)-G(ustave) Guillaume이라는 이름으로, 그후 暗暗里에 포기된, 세 편의 小論文을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

1911 : 論理적 比較文法 硏究. 佛語, 獨語, 露語의 直說法 過去(*Études de grammaire logigue comparée, Les passés de l'indicatif français allemands et russes*) 1912 및 1913 : 論理적 佛語文法 硏究. 時間, 空間에서의 法의 位置 : 第Ⅰ篇 : 冠詞 ; 第Ⅱ篇 : 時制(*Études de grammaire française. Le lieu du mode dans le temps, dans l'espace:*

[9] 앞(註 : 1)의 目錄 : VALIN(1971), p. 13.

fascicule Ⅰ : *L'article;* fascicule Ⅱ : *Les temps*).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Saussure 主義의 형성 이전의 자취들을 주워 모으기 위하여 이들 세 작품을 펼쳐 볼 것을 권한다(…).

Guillaume은——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一般言語學講義'를 刊行 즉시 읽었다. 다분히 Paris에서의 Saussure의 옛 제자이며, 1889~1890에 Saussure의 代理役을 맡았고 그후 그의 친구요 그의 좋은 交信者가 된, Antoine Meillet에 의해서 이미 전달이 되었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Guillaume이 Saussure에 관해서 언제나 好意적으로 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학자는 신랄한 비평가였다. 그는 의심이 많고,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조그만 비판에도 곧 傷心하며, 國外에서의 연구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의 생애를 완전한 孤立속에서 지낸 사람이다(…).」[10]

다음에는 언어기호, Saussure에 의하면 《두 면을 가진 心理적 實在體》(entités psychique à deux faces), 또는 한 개념(또는 被指示要素)와 聽覺映像(또는 指示要素)의 결합(combinaison d'un concept (ou *signifié*) avec une image acoustique (ou *signifiant*))[11]에 관해서 살펴 보자.

우리는 Guillaume에게서 그와 가까운 것을 발견한다 :

1912 :

《思考에 선행하는 행위는 瞑想이다. 인간은 瞑想을 한다 : 그의 눈에는 實在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인간은 그것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데 무력하다 ; 인간은 그것을 一般化시킬 필요를 느낀다. 그의 思考는 瞑想으로 부터 分離되어, 類推的 群心에 의하여 一般적 槪念을 형성한다… 이 원래가 流動적인 槪念은 포착되기를 요구한다 ; 그 槪念은 對象이 아니므로 記號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記號가 곧 單語이다.

'冠詞의 문제'(*Le problème de l'article*)에서 Guillaume은 절대로 착오가 아닌 한, 指示要素《signifiant》와 被指示要素《signifié》라는 말을 쓰지 않고, 單語(mot)와 事物(chose)이라는 말을 쓴다. 1953에야 비로소 그에게서 그들 두 표현이, 게다가 그 원래의 용법에서 벗어난 채로, 쓰히고 있음을 발견한다 : Saussure의 記號《signe》는 指示要素《sienifiant》가 됐고 거꾸로 指示要素《signifiant》는 記號《signe》가 되었다 ; 被指示要素《signifié》는 잠재적 被指示要素《signifié de puissance》와 결과적 被指示要素《signifié d'effet》[12]로 나뉜다(…)」.[13]

---

[10] 앞(註 : 1)의 目錄 : Wilmet(1972), p. 18.

[11] 뒤(p. 460)의 (Ⅲ) 恣意적 比較에 관한 目錄 Saussure(1955), p. 21.

[12] 뒤(p. 458)의 Guillaume 著書目錄 : Guillaume(1973), pp. 246-247 : 이것을 해석하여, 公式으로 나타내면 :

Saussure : 1) "**signe**(中)=signifié(初)+signifiant(終)" ;
2) "**signifié**(初)=signifiant(終)+signe(中)", 와 같이 되고,
Guillaume : 1) "signifié(初/終)=signe$_1$(中$_1$)+signe$_2$(中$_2$)" ;
2) signe$_1$(中$_1$)=signifié(初/終)+signe$_2$(中$_2$)와 같이 된다.

이 두 公式은 뒤(p. 153이하)의,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에, SAUSSURE의 言語/말(*langue/parole*)의 兩分法이 GUILLAUME에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GUILLAUME의 '冠詞의 문제'(*Problème de l'article*)에 나오는 **寶庫**(trésor)라는 隱喩[14]를 들어 SAUSSURE에게 힘 입었음을 지적하나, SAUSSURE의 言語/말(*langue/parole*)이 그 저서(Problème de l'article)에서는 이미 言語/**表現**(*langue/discours*)으로 再解釋된 데다가, SAUSSURE의 言語/말(langue/parole)의 兩分 보다는 잠재적 측면(*plan de puissance*)/결과적 측면(*plan dieffet*)의 對立을 더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은 더 멀리 1912~1913에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실제 예를 들어, 보이고 있다:

「'冠詞의 문제'(*Problème de l'article*), 1919(言語《*langue*》와 表現《*discours*》의 사용의 예):

(…) 冠詞 없이도 능히 쓸 수 있는 명사는 **言語**의 **寶庫**속에 **저장**된 一般적인 개념의, **表現**에 의해서 요구되는 덜 一般적이고 더 **具體**적인 개념으로서의 移行의 과정에서, 變異의 최소의 가능성을 지닌 명사들이다」[15]

'冠詞의 문제'(Problème de l'article), 1919(**잠재적 측면**《*plan de puissance*》과 **결과적 측면**《*plan d'effet*》의 사용의 예):

「이 문제는, 인간의 정신이 使用 이전의 명사, 다양한,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는, **事物**을 指稱하는 단순한 **잠재력**(*puissance*)과, 이들 事物들의 하나 또는 여럿을 **결과적으로**(*en effet*) 指稱하는 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느낀 때로 부터 시작한다」[15]

1912(앞 p. 151의 1912項 참조) 및 1913(**잠재적**《*en puissance*》과 **사용**(결과)**적**《*joué*》의 구별의 예):

「그러므로 外國語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가지의 수단을 갖는다: 1° 그들의 두뇌가 요구되는 순수성을 갖는다면,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그들 속에 **잠재적**[15]**으로** 저장될 때 까지 기다리는 것…」

SAUSSURE의 중심 개념[16]인 **體系**(système)에 관해서는, SAUSSURE 이전에 이미 全體(ensemble)라는 뜻으로 GUILLAUME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되고 있다:

「1912:

언어(활동)에서는 모두가 相互連關되어 있다.… 우리의 **밖**에 있는 **큰** 宇宙는 그 法則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작은 宇宙도 그의 法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

[13] 앞(註: 1)의 WILMET(1972), p. 22.

[14] 앞(註: 11)의 SAUSSURE(1955), p. 30.

[15] 앞(註: 13)의 WILMET(1972), p. 23.

[16] 앞(註: 14)의 SAURRURE(1955), pp. 125-127 등; 앞(註: 4)의 **目錄**: MOUNIN (1966), p. 25, 참조.

最高의 法則은 하나이다」[17]

「1919, '冠詞의 문제' (*Problème de l'article*):

(…) 한 體系의 특징은 全體로써 部分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全體觀은 特殊觀과 分離될 수 없다」[18]

그리고 이 **全體**라는 개념은 뒷날의 GUILLAUME의 **心理力學**(psycho-mécanique)[19]의 중심 개념과 합치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SAUSSURE의 共時/通時(synchronie/diachronie)의 兩分[20]과 GUILLAUME의 理論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GUILLAUME의 歷史에 대한 無關心과 人間(=主觀性)에 대한 强調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이라는 主體가 **實物視(客觀視)**된, 歷史(=通時)와 非歷史(=共時)의 **主從적(非等質적) 連結**, 따라서 '人間—歷史(=通時)—非歷史(=共時)'의 **主從적(非等質적) 三分적 連結**이 아니라, 人間이라는 主體를 **形式**으로 한(=**主觀化**한), 歷史(=通時)와 非歷史(=共時)의 **平等적(等質적) 連結**, 따라서 '人間—歷史(通時)—非歷史(共時)'의 **平等적(等質적) 三分적 連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SAUSSURE와 GUILLAUME의 '記號(signe)(적 連續體)觀' 그리고 '言語(langue)(적 連續體)觀'과 나란히, 이번에는 '共時(synchronie)(적 連續體)觀' 이라고 부른다면, SAUSSURE와 GUILLAUME의 **共時적 連續體**는 다음과 같이 구별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SAUSSURE: 1) "汎時論(panchronie)=共時論+通時論,"[21]

2) "**共時論(synchronie)**=通時論+汎時論";

GUILLAUME: 1) "共(通)時論(syn〈dia〉chronie)=汎時論$_1$+汎時論$_2$"

2) "**汎時論$_1$(panchronie$_1$)**=共時(通時)論+汎時論$_2$", 와 같이 된다.

---

[17] 앞(註 : 15) WILMET(1972), p. 20.

[18] 앞(註 : 17) WILMET(1972), p. 21.

[19] **心理力學**에 대해서는 뒤(pp. 450-452) 참조. **體系**(=**全體**)와 **部分**의, **恣意적 連續體觀**과 **必然적 連續體觀**(뒤 : pp. 454-456 등 참조)을 앞(註 : 12)의 **記號**(signe)에 관한 SAUSSURE/GUILLAUME의, 公式에 맞추어, 公式으로 나타내면 :

**恣意적 連續體**(SAURRURE): "**體系**(=**全體**)=部分$_1$+部分$_2$",
"**部分$_1$**=部分$_2$+體系(=全體)",

과 같이 되고,

**必然적 連續體**(GUILLAUME): "**部分$_1$**(**部分$_2$**)=體系$_1$+體系$_2$",
"**體系$_1$**=部分$_1$(部分$_2$)+體系$_2$",

와 같이 된다.

[20] 앞(註 : 16)의 SAUSSURE(1955), p. 128.

[21] 앞(註 : 20)의 SAUSSURE(1955), p. 134.

위 公式에서, =의 왼편의 部分은 각각 等質化(平等化/形式化)의 頂點(始發點)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 오른편 部分은 각각 그 頂點(始發點)과 連續되는 部分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 표시는 따라서 頂點(始發點)적인 특성을, "+" 표시는 頂點(始發點)에 連續된 部分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볼 때, SAUSSURE의 **共時적 連續體**의 頂點(始發點)인 汎時論(panchronie)은 共時/通時를 초월한 自然科學적 法則에 비유되는, 따라서 具體적인 言語事實과는 동떨어진 物理的 사실이므로[21], 具體적인 言語事實에 **共通된 바탕**에는 아직 못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記號(signe)적 連續體'에서의 共通된 바탕은 被指示要素(signifié) 즉 意味이듯[22], **共時적 연속체**의 共通된 바탕은 **共時論**이다. 이 **共通된 바탕**을 **頂點(始發點)**으로 하는 連續體라야, 그 觀點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比較**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比較**가 가능한 단계로 끌어 올려진 連續體는 **比較의共通基**[23](적 **連續體**)(=**必然적 連續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이 **比較의 共通基**라는 觀點에서라야, 그 단계에 못 이른 連續體의 定位置를 規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眼目에서 볼 때, GUILLAUME의 共時적 連續體는 SAUSSURE의 共時적 連續體에 비하여 **比較의 共通基적 連續體**라는 觀點에서 세워진 連續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念頭에 두고, 다시 GUILLAUME에 관한 설명으로 돌아 가 보자.

GUILLAUME의 主觀性의 强調, 歷史적 記述方法에 대한 批判, 心理體系(psycho-systématique)/心理記號論(psycho-sémiologie)/心理力學(psycho-mécanique)라는 三分法적 **比較의 共通基적 連續體**의 定立, 등을 해당 연구가들로 부터 직접 인용해 보자:

1912~1913(第Ⅱ篇: 時制《fascicule Ⅱ: *Les temps*》) (GUILLAUME의 主觀性의 强調에 관한 미국의 Gustave G. LAUBSCHER의 위에 든 책에 대한 書評에서의 설명):

《統辭論의 문제에 있어서는 主觀적 측면에 대한 올바른 고려가 없이 現象들을 目錄化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저서에서 著者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 선 것 같다; 理論적 哲學적인 면이 歷史적 發展이나 실제의 적용보다 더 주의 깊게 다루어졌다》.[24]

앞의 **共時적 連續體**의 예에 따라서[25], 이 主觀性에 力點을 두는 連續體를

[22] 앞(註: 19)의 GUILLAUME적 公式 참조. 또 이와 같은 취지에서의, 被指示要素(signifié)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뒤(p. 173)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HIRTLE(1973) p. 16 참조.

[23] 뒤(pp. 454-456 등)의 **必然적 比較/恣意적 比較**; **必然적 連續體/恣意적 連續體**, 참조.

[24] 앞(註: 18)의 WILMET(1972), p. 21.

[25] 앞(p. 439)의 **共時적 連續體**에 관한 公式 참조.

**主觀적 連續體**라고 부른다면, 이 **主觀적 連續體**는 다시 **比較의 共通基**(=**恣意적 連續體**를 제거/배제하는 **必然적 連續體**)[26]라는 觀點에서, 1) **比較의 共通基**가 아닌 **主從적**(**非等質적**) **三分적**(=**主觀적 連續體**(=**恣意적 連續體**=**客觀적 連續體**)와 2) **比較의 共通基로서의 平等的**(**等質的**) **三分적 主觀的 連續體**(=**必然적 連續體**)로 나뉜다. 이들 두 **連續體**를 앞의 **共時적 連續體**의 경우에서와 같이 公式으로 표시함에 있어서는, 앞의 **連續體**의 경우는, "共時(=初)/通時(=終)/汎時(=中)", 과 같이 用語가 三分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번의 경우는, "主觀"(=初)/"客觀"(=終), 과 같이 用語가 兩分되어 있으므로, "主觀"(=初)와 "客觀"(=終)을 합친 "主觀・客觀"(=中)을 만들어서, "主觀(=初)/客觀(=終)/主觀・客觀(=中)", 과 같이, 三分한 후에, 앞의 **共時적 連續體**의 公式의 예에 따라서,

1) **恣意적**(**客觀적**) **連續體**: "**主觀・客觀**(=中)=主觀(=初)+客觀(=終)",
"主觀(=初)=客觀(=終)+主觀・客觀(=中)";
2) **必然적**(**主觀적**) **連續體**: "主觀(客觀)(=初〈終〉)=主觀・客觀$_1$(=中$_1$)+主觀・客觀$_2$(=中$_2$)";
"主觀・客觀$_1$(=中$_1$)=主觀(客觀)(=初〈終〉)+主觀・客觀$_2$(=中$_2$)",

과 같이 된다.[27]

다시 이번에는 GUILLAUME의, 歷史에 대한 觀點에 관해서:

「1913:
言語의 歷史는 (精神에게 있어서는) **一連의 結果**이지, **原因**과 **結果**의 交替가 아니다」[28]

앞의 三分적(=**用語**가 **兩分**되어 있는 것을 **三分化**시킨) **主觀적 連續體**의 公式의 예에 따라서, "原因"(=初)/"結果"(=終)/"原因・結果"(=中), 과 같이, **三分化**시킨 用語로써, **歷史적**(=**恣意적**) **連續體**와 **非歷史적**(=**必然적**) **連續體**를 公式으로 표시하면:

1) **歷史적**(=**恣意적**) **連續體**:
"**原因・結果**(=**中**)=原因(=初)+結果(=終),"
"**原因**(=**初**)=結果(=終)+原因・結果(=中)";
2) **非歷史적**(=**必然적**) **連續體**:

[26] 앞(註: 23) 참조; 뒤(pp. 454-456) 참조.
[27] **用語**가 **兩分**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三分化**시켜서, **公式**으로 표시하는 데 대해서는 뒤(p. 451이하) 참조.
[28] 앞(註: 24)의 WILMET(1972), p. 21; pp. 21-22.

**"原因(結果)(初〈終〉)**=原因・結果$_1$(=中$_1$)+原因・結果$_2$(=中$_2$)",
**"原因・結果$_1$(=中$_1$)**=原因(結果)(初〈終〉)+原因・結果$_2$(=中$_2$)",
와 같이 된다.

여기서, "分析된" "原因"(=初)/"結果"(=終)에 力點을 두는 **非歷史적**(=(=**必然적**) **連續體觀**이, "分析되지 않은" "原因・結果"(=中)에 力點을 두는 **歷史적**(=**恣意적**) **連續體觀**을 **제거/배제**한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力點의 二重性**, 즉 **必然적 比較觀**에 대한, GUILLAUME의 觀察의 싹을 엿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13: :

우리는, 言語硏究에서 너무나 집요하게 사용되는 歷史적 記述方法——그것이 낳는 착각을 특수한 관점에서 조사하는 데 그치려 한다… 예컨대 우리는 言語의 한 歷史에서 어떤 動詞 V 뒤에다 어느 世紀에는 法 *m*을 사용하다가 100년 뒤에는 다른 하나의 法 *n*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읽는다. 動詞 V는 불변인 채로 남아 있으므로. 우리는 法이 바람처럼 제멋대로 분다고 믿게 된다… 우리가 흔히 하지 않는 반성은, 動詞 V가 100년 사이에[28]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公式 표시의 예에 따라, 歷史적 觀點 즉 100년이 지나도 불변인 남아 있는 動詞 V에 대하여 法 *m*가 法 *n*로 변한 것으로 보는, 바꿔 解釋해서 實物(=客觀)로서의 動詞 V를 **主**(**出發點/頂點**)로 하고, 法 *m*과 法 *n*을 그것의 連續으로 하는, (客觀/實物)動詞中心의 **歷史적**(=**恣意적**) **連續體觀**과, 그렇지 않고, 形式(=主觀)으로서의 法(*m*/*n*)을 **主**(**出發點/頂點**)로하고, 動詞($V_1$/$V_2$)를 그것의 連續으로 하는 (主觀/形式) 動詞中心의 **非歷史적**(=**必然적**) **連續體觀**, 의 **二重性**을 公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歷史적**(=**恣意적**) **連續體**: "**動詞**(V)=法(*m*)+法(*n*)",
"**法**(*m*)=法(*n*)+動詞(V)";

2) **非歷史적**(=**必然적**) **連續體**: "**法**(*m*/*n*)=動詞($V_1$)+動詞($V_2$)",
"**動詞**($V_1$)=法(*m*/*n*)+動詞($V_2$)",

과 같이 표시된다.

다음에는 Christoph EICH에서 인용해 본다:

「言語의 本質에 관한 그의 15년간에 걸친 끊임 없는 思索의 出發點과 前提는 단순하고 또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첫째로 言語의 時間性에 관한 洞察을 꼽을 수 있다. 즉, 言語의 歷史적 生成의 認定만이 아니라, 모든 思考活動과 言語活動이 線條적인 時間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의 認定은, 훌륭히 時間과 관계되는 것이다(作用的 時間《temps opératif》)(…)

(…)그는 (…) 言語의 形式構造를 그의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歷史적 觀察과는 對立된다 : 《…유일한 改革(修正)은, 言語의 物質적 부분을 문제로 삼을 때, **起源(=初)적**이던 再構된 原始型이, 形式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을 때는, **終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形式의 意味에 관해서 말하자면, **起源(初=)적인 狀態**가 희미하게 나마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들어내 주는 것은, 결국 **終의 狀態**이다; 그리하여 《理論의 時間》은, 만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時間의 **起源(=初)**이 아니라, 時間의 **終**에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理論家는 무엇보다도 우선 現代에 속하는 諸作業에 눈을 돌려야 한다. 보다 옛날에 속하는 諸作業은 理論家에게는 그 설명에 필요한 明確性이 요구될 것이다. 왜냐하면 理論家는 (보다 옛날에 속하는 諸作業을) 그후 分明한 특징으로 표시된 體系의 희미한 윤곽으로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時制와 動詞"(*Temps et Verbe*: 1929)에서 처음으로 그에게서 言語體系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로부터 다음의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 人稱을 제하면, 動詞形態의 總體(時制, 法, 性, 相)는 빼어나게 時間적인 특징을 소유하고 있고, 인구어의 각각에서 固有한 그리고 때로는 풍부하게 分化된 時間映像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 時間映像은 圖式으로 紙上에 표시할 때는 時間의 空間化로서 認識하게 된다(…) 이 言語(langue)에 맡겨진 時間映像, 즉 우리의 전체의 時間意識의 略圖는 言語行爲(作用적 時間《temps opératif》)에서 언제나 《잠재적 時制(temps in posse)》(不定法, 分詞)로 부터 《經過的 時制(temps in fieri)》(接續法)를 거쳐서 《結果적 時制(temps in esse)》(直說法)의 방향으로 달리며, 요구되는 위치에서 정지한다. 《잠재적 時制》로 부터 《結果적 時制》로의 一走를 Guillaume은 《根源的 時間(chronogenèse)》이라고 부른다. 개개의 형태가 表現(discours)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意味와 色彩들은 **言語體系**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結果적 意味(effet de sens)》에 불과하다」[29]

위의 글을 추려서 公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먼저 **歷史적 時間性(線條性/連續體性)**과 **非歷史적(言語活動/思考적) 時間性(線條性/連續體性)**에 관해서 : 이것은 곧 **歷史적/非歷史적 時間性(線條性/連續體性)**을, 앞의 예에 따라서, **二重性**이라는 角度에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線條性(時間性/連續體性)**에 대한 **二重性**이라는 角度에서의 把握은, **脫二重性** 즉 **單一(次元)性**이라는 角度에서의 把握과는 구별된다.[30]

---

[29] 뒤(p. 459)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Eich(1960), pp. 389-391.

[30] **二重性적 連續體**觀에 대해서는 앞(p. 442) 및 뒤(p. 444 이하) 참조 ; **脫二重性적 連續體(線條體)**觀에 대해서는, 앞(註 : 20)의 Saussure(1955), p. 103 참조.

單一(次元)의 角度에서 把握된 線條性(時間性/連續體性)은, "처음→가운데→끝"이라는 순서의, "初→中→終"으로 表示될 수 있다. 이 "初→中→終" **連續體(線條體/時間體)**는, 아직 **二重性적** 連續體(線條體/時間體)에 못 이른, **脫二重性적** 連續體(線條體/時間體)로서, **二重性적 解釋**이 加해짐으로써(=**脫二重性적**인 解釋이 **배제/제거**됨으로써) 비로소 **二重性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初"에서 "終"에 이르는 **貫通(通過)地域**으로서의 "中"과, 그 通過(貫通)의 **初發點**과 **終着點**으로서의 "初"와 "終"에 대한, **單一(次元)적/脫二重性적**이 아닌, **二重性적**인 把握이 행하여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1)의 **恣意적 連續體**와 2)의 **必然적 連續體**에 대한 公式으로의 표시에 반영된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예에 따라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

1) **歷史적 時間性(線條性/連續體性)** :

"中=初+終",
"初=終+中" ;

2) **非歷史적(言語活動/思考적) 時間性(線條性/連續體性)** :

"初(終)=中$_1$+中$_2$",
"中$_1$=初(終)+中$_2$",

와 같이 표시된다.

위의 글에서, 言語의 **物質적** 부분을 문제로 삼을 때, "**起源(=初)적**이던 再構된 原始型(prototype)이, **形式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을 때는, **終적**일 수밖에 없으며(…)《理論의 時間》은 (…) 時間의 起源(=初)이 아니라 時間의 **終**에 자리잡는다"라고 했을 때, **歷史적/起源적(物質적/非理論적) 時間**에서의 "初"와, 非歷史적/非起源적(形式적/理論적) 時間에 있어서의 "終"이란, 위의 公式으로 表示할 때는 각각, "初"는 1)의 "分析되지 않은 **中**적인 **歷史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 즉 : "**中**=初+終" ; "**初**=終+中", 에서의 "**頂點(出發點)**으로서의, **中** 또는 **初**에 해당되고, "終"은 2)의 "**分析된 初(終)**적인 **非歷史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 즉 : "**初(終)**=中$_1$+中$_2$" ; "**中$_1$**=初(終)+中$_2$", 에서의 **頂點(出發點)**으로서의 **初(終)** 또는 **中$_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 **非理論적(歷史적/物質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와 2) **理論적(非歷史적/形式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의 公式은, 위와 똑 같이 표시된다 :

1) **非理論적(物質적/歷史적) 連續體(線條體/時間體)**:
"中=初+終",
"初=終+中";

2) 理論적(形式적/非歷史的) **連續體(線條體/時間體)**:

"初(終)=中$_1$+中$_2$",
"中$_1$=初(終)+中$_2$",

와 같이 표시된다.

다음에는, 위의 글에서, 《根源적 時間》(chronogenèse)으로서의, 《잠재적 時制》(temps in posse)→《經過적 時制》(temps in fieri)→《結果적 時制》(temps in esse)의 一走(連續體/線條體/時間體)와, 그에 반대되는 《非 根源적 時間》(chronothèse)[31]에서의 一走(連續體/線條體/時間體)를, 《잠재적 時制》는 "初"에, 《經過적 時制》는 "中"에, 結果적 時制》는 "終"에 公式으로 表示하면:

1) **《非根源적 時間》에서의 一走(連續體/線條體/時間體)**:

"**《經過적 時制》(中)**=《잠재적 時制》(初)+《結果적 時制》(終)",
"《잠재적 時制》(初)=《結果적 時制》(終)+《經過적 時制》(中)";

2) **《根源적 時間》에서의 一走(連續體/線條體/時間體)**:

"《잠재적 時制》(初)(**結果적 時制**》(**終**))=《經過적 時制》$_1$(中$_1$)+《經過적 時制》$_2$(中$_2$)",
"**《經過적 時制$_1$》(中$_1$)**=《잠재적 時制》(初)(《結果적 時制》(終))+《經過적 時制》$_2$(中$_2$)",

와 같이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Guillaume의 **心理體系**(psycho-systématique)/**心理力學**(psycho-mécanique)/**心理記號論**(psycho-sémiologie), 의 **三分**에 관해서 살핌으로써, Guillaume과 Saussure의 비교를 마치고저 한다:

우선 **心理體系**(psycho-systématique)/**心理記號論**(psycho-sémiologie)의 兩分에 관해서:

「(…) 내가 여기서——言語學에서 매우 重要한 區分——變異적인 것으로서의 社會적인 것과 不變적인 것으로서의 人間적인 것의 區分을 소개함은 한두번이 아니다. 言

[31] **根源적 時間**(chronogenèse)/**非根源적 時間**(chronothèse)의 구분에 관해서는, 뒤(p. 456)의 Guillaume 主著: Guillaume(1970), pp. 8-11; 뒤(p. 459)의 (Ⅱ)의 1)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Wilmet(1978), pp. 47-48, 참조.

語들이 그들의 體系로서의 특징을 힘입고 있는 것은 變化하는 社會적 사실이 아니라, 人間적, 잠재 社會적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人間의 思考를 規制하며, 또 그것 없이는 人間의 思考는 無力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言語들이 그들의 構造를 힘입고 있는 —잠재 社會적— 이들 人間적 사실의 要點은: 人間의 思考는 끊임 없이, 그 內部에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그리고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움직인다는 것; 이 **二重적 運動**이 思考에서 禁止되면, 그와 동시에 思考는 모든 그 힘을 잃는다는 것, 이다(…)

思考하는 人間에게는,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좁은 데** 쪽으로 향하는 **特殊化의 作業**으로 부터 **넓은 데** 쪽으로 향하는 **一般化의 作業**으로 계속 移轉함은, 명백하다. **人間의 思考**는, 전체적으로, **特殊化**에는 **一般化**로, **一般化**에는 **特殊化**로 대꾸하는 **二重적인 能力** 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 대꾸 행위는 한 特有語의 體系적 構造를 이루는 全部의 기초가 된다. 이 대꾸 행위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의 例와 하나의 존재의 증거가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分明히 識別(discerné)된 개념에 一般化적인 理解(entendement)가 호응을 한다. 그리고 단어(mot)는 이들 두 作業의 總體로서, 그 둘째 작업 즉 形式적이고 一般化적인 작업이 그 첫째 작업 즉 物質적이고 特殊化적인 작업에 호응한다.

내가 **佛語의 記號論的 構造와 心理적 구조**라는 題目이 지닌 구분에 관하여(…) 이야기 하려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區分에 관해서 이다. 이들 두 構造 가운데서 둘째 것, **心理적 體系**만이 **人間적, 잠재 社會적**이다. 첫째 것, **記號論적 構造**는, 그와 반대로, **社會적**이다(…).

(…)言語에는, 言語가 그 構造를 힘입고 있는, 根本적인 人間적 사실들의 展開가 있다(예컨대, 數와 冠詞). 위에 말한 바로 부터, 言語活動의 心理體系는 人間의 建設作業——즉, 言語活動의 相異한, 變異적인 社會狀態 아래에서 不變적인 ——에 관여함에 반해서, 心理記號論은 현존하는 記號論的 狀態로 부터 새로운 記號論적 狀態를, 言語의 構造가 토대를 두고 있는 人間적 思考의 큰 사실들에 맞춰서, 끌어내는, 思考의 作業만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心理體系는 人間을 떠나지 않으며, 心理記號論은 社會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硏究는 순간성을 멀리하고 항구성을 향하는 言語의 사실과, 순간성에 종속되며 그것의 섬세한 變異들에 맞는, 表現의 사실들을, (…)一貫되게, 구별한다(…)[32]

다음에는 **心理力學**(psycho-mécanique)에 관해서:

「(…) 그것(心理體系)은 적절한 **테크닉**을 사용한다(…)이 **테크닉**의 要點은 각 言語現象을 그 垂直적 展開라는 첫째 측면아래 表像하고, 垂直적 展開에 直角으로 그어진 水平적 절단으로 그것을 分析하는 것이다(…) 그런데 思考가 그의 고유한 活動에서 그

[32] 뒤(p. 458)의 GUILLAUME 講義錄 ⑤, p. 23, p. 24 및 p. 30.

자체를 포착하는 이들 수단은(…) 力學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것은 **心理力學**으로서, 그 구성원리는 포착의 便法을 연구하고(…) 이 便法을 얻게하는 최상의 경제성을 연구하는 일이다」[33]

**心理體系**는 **不變적인 人間**에 관계되는 **人間적 連續體**[34]이고, **主觀적 連續體**[35]이며 共時적 連續體, 그리고 **分析된**(=〈이하 **分析된**으로 통일〉 **넓은/一般적/항구적**) **連續體**임에 반하여, **心理記號論**은 **變異적인 社會**에 관계되는 **社會적 連續體**[36], **客觀적 連續體, 通時적 連續體, 分析 안된**(=**識別적/좁은/特殊적/순간적**〈이하 **分析 안된**으로 통일〉 **連續體**라고 할 수 있다. 또, 言語現象을 포착하는 便法으로서의 **心理力學**과, 便法과는 구분되는 **心理體系/心理記號論**과는, **作用적 連續體**와 **非作用적 連續體**로 구분지어서 부를 수 가 있다. 그리고 **心理力學**의 內部는 다시 **垂直적**(=**非分析적**)/**水平적**(=**分析적**)으로 나뉜다. 다시 또, "좁은"(非分析된)데서 "넓은"(分析된)데로, "넓은"(分析된) 데서 "좁은"(非分析된) 데로 움직이는 思考의 **二重性**[37]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는 : 1) **作用적 連續體**로서의 **心理力學**에 力點을 두는 連續體가 單一(次元)적인 "初→中→終" 連續體(時間體/線條體), 즉 "初"에서 "終"으로의 **通過(貫通)地帶**, 즉 **非分析地帶**로서의 "中"을 頂點(出發點)으로 하는 **單一**(또는 **等**) **方向적**, 즉 **脫二重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임에 반하여, 2) **非作用적 連續體**로서의 心理體系/心理記號論에 力點을 두는 連續體는, **分析된** "初"와 "終"(그 代表로서 "初")를 頂點(出發點)으로 하는 **二重**(또는 **異**)**方向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라고 할 수 있다.

위 1)의 **脫二重적**(즉 作用적 連續體로서의 **心理力學**에 力點을 두는) **連續體**와, 2)의 **二重적**(즉 非作用적 連續體로서의 **心理體系/心理記號論**에 力點을 두는) **連續體**는, 각각, 그것을 公式으로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

1) **非作用적 連續體**와 **作用적 連續體**를 完全히 **相互無關**[38]한(=**恣意적인**) 것으로 公式에다 表示하는 방법 : "相互無關"(=**恣意적**)하다는 것은 "相互有關하다"(=**必然적**)는 것과 對立된다. 지금까지의 公式의 表示에서 "1")의 連續體와 "2")의 連續體는 "相互 有關한"(=**必然적인**) "二重性적인" 것으로 表示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相互無關"한(=**恣意적**인) 것으로서 公式에다

---

33 뒤(p. 458)의 GUILLAUME 講義錄④, pp. 93-95.
34 앞(p. 446) 참조.
35 앞(p. 446) 참조.
36 앞(p. 446) 참조.
37 앞(p. 446) 참조.
38 뒤(p. 450)의 **恣意적 比較** 참조.

表示한다는 것은 **脫二重性적**인 것, 즉 1)의 公式: "中=初+終"의 連續體가 아직도 二重性적인 解釋을 받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의 **單一(次元)적/等方向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인 채로 남아 있어서, 2)의 連續體(=**必然적 連續體**)를 **도외시한**, 1) (=**恣意적 連續體**)만을 고려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바꿔 말하면 이 1)의 경우는 2) (=必然적인 "1")에다 力點을 두고 1) (=恣意적인 "1")을 **제거/배제**하는 경우가 아니라, 1) (=恣意적인 "1")에만 力點을 두고 2) (=必然적인 "1")를 고려하지 않는, 따라서, 1) (=恣意적인 "1")을 **제거/배제**하지 않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비록 "恣意적"인 "2"를 設定하여 "1"과의 關聯을 억지로 맺게 하여, "1"과 "2"의 二重性의 存在를 試圖한다 하여도, 결국은 "2"는 "1"과 마찬가지의 "中=初+終" **連續體**의 "테두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이 경우는 "1"의 單一(次元)적/等方向적 連續體만이 "2"에서도 **되풀이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中" 대신에 **作用的 連續體**를, "初"/"終" 대신에 **非作用적 連續體$_1$/非作用적 連續體$_2$**를 代入하여 表示하면, "**作用적 連續體**=非作用적 連續體$_1$+非作用적 連續體$_2$"만이 無限히 反復이 되는 公式이 되고 만다.

2): 1)의 경우와는 반대로, **非作用적 連續體**와 **作用적 連續體**를 完全히 "相互關聯이 있는"(=**必然적인**)[39] 것으로 公式에다 表示하는 방법: 完全한 相互關聯性"(=**必然性**)이란, "完全한 二重性"/"完全한 異方向性"과 통한다. 즉, "脫二重性(또는 單一次元性)"/"脫異方向性(또는 等方向性)"이 "完全히 除去되었다"는 것과 통한다. 이것은, 곧 1)의 "**中**=初+終" 連續體가 **위** 1)의 **公式의 表示**에서 본 바와 같이, 完全히 二重性적인 解釋이 加해지지 않은 狀態에서의, 單一(次元)적/等方向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 따라서 2)의 連續體: "**初(終)**=中$_1$+中$_2$", 이 결여된, (즉 다시 말해서, 1)의 連續體: "**中**=初+終", 의 頂點(出發點): "中"과 그에 連續되는 "初"/"終"이, **각각, 남김없이/有限하게**, 二重性적/非單一 차원적/異方向적으로, 分析이 되지 않고, 그 **각각이 남김있이/無限하게**, 脫(非)二重性적/單一次元적/等方向적으로, 分析되어 나가는) 즉, "1"의 連續體: "**中**=初+終", 만이 "2"에서도 그대로 反復되는 경우와는, 對立된다. 즉: 바꿔 말하면, 이 2)의 경우는 1) (恣意적인 "1")에만 力點을 두고 2) (=必然적인 "1")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2) (必然적인 "1")에다 力點을 두고 1) (=恣意적인 "1")을 **제거/배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1)의 경우 (恣意적 "1"에만 力點을 두고 必然적인 "1"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1" "**中**=初+終"

---

[39] 뒤(p. 450)의 **必然적 比較** 참조.

"2" "初=中+終"
(⋮)
**無限히 反復됨,**

에 대하여,

2)의 경우 (必然的인 "1"에다 力點을 두고 恣意적인 "1"을 **제거/배제**하는 경우) : "1" "**初(終)**=中$_1$+中$_2$" (*주의 : 이하 모두에서는 **初(終)**은 **初**로 대표 표시함)

"2" "**中**$_1$=初(終)+中$_2$"
(⋮)
**有限히 非反復됨,**

과 같이 對立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 1)의 **反復**(=再起)과 2)의 **非反復**(=非再起)과 관련하여, GUILLAUME의 "非再起의 法則"(la loi de non-récurrence)을 아래에 삽입하여 두기로 한다 :

「또 하나의 중요한 原理는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것이다 : A/B라는 관계는 모두, 그것을 定立(파악)하려는 理解行爲에 관여할 때에는, 連續體(entier)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에 從屬된다. 그런데, 連續體(entier)의 조건이 만족되려면, 出發點으로 되돌아 오지 않는 덧 붙는 모습으로, 두 方向으로의 一走가 필요하다. 非再起의 法則이 곧 그것이다(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그림 표시는 피해야 한다 :

$$A \longrightarrow B = 1/2\text{관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그림도 피해야 한다 :

$$\begin{array}{l} A_1 \longrightarrow B_1 \\ A_2 \longleftarrow B_2 \end{array}$$

왜냐하면, 그것은 出發點——出發位置로 되돌아 가서 그 관계를 無效化하기 때문이다. 즉 :

$$\left.\begin{array}{l} A \longrightarrow B \\ A \longrightarrow B \end{array}\right\} = 0$$

따라서, 다음과 같은 덧 붙는 連續性(successivité additive)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

$$A_1 \longrightarrow B_1 \;\Big|\; B_2 \longrightarrow A_2$$

왜냐하면, 그것은 뒤로 되돌아 옴이 없이, 再起함이 없이, 두 一走 : $\overrightarrow{AB}$와 $\overrightarrow{BA}$를 덧 붙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사실 配列(配置)은 時間적인 것이지, 空間적인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이다. 빠리—베르사이유 往復路線을 예로 들어 보자. 空間적으로는, 귀환은 나를 빠리 즉 出發地點으로 되돌린다. 귀환 位置는 出發位置와 같다. 그러나 時間적으로는, 路線이 $n$分적이기 때문에, 귀환 位置는 出發位置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개의 相異한 位置이다. 그것은 새로운, 更新될 수 없는 位置이다. 空間的으로는 귀환이 가능하나, 時間적으로는 : 귀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時間적인 配列(配置)은 言語의 構造를 이룩하는 配列(配置)이다. 그러므로 우리는——擴大 범위(extension)는 特殊적(singulier)과 一般적(universel)으로 한정된다——特殊 또는 一般에 出發點을 두고, 再起 없는 두 方向으로의 一走에 의해서 : 다음의 그림을 얻는다 :

$$1)\ S_1 \longrightarrow U_1 \mid U_2 \longrightarrow S_2$$

또는

$$2)\ U_1 \longrightarrow S_1 \mid S_2 \longrightarrow U_2$$[40]

다시 앞으로 돌아 가서——, 1)의 경우(즉 **恣意적 比較**의 경우)[41]와 2)의 경우(즉 **必然적 比較**의 경우)[41]에서 각각 새운 公式의 취지에 따라서, 앞의 GUILLAUME의 引用에 나온 用語 : 1) "心理體系"/"心理記號論"/"心理力學" ; 2) "人間"/"社會", "主觀"/"客觀", "分析"(理論적/넓은/一般적/항구적 : 이하 "分析"으로 통일)/"非分析"(識別적/좁은/特殊적/순간적 : 이하 "非分析"으로 통일), "非作用"/"作用", 을, 총괄하여, 아래에다 公式으로 표시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표시한다(*단, 2)의 **必然적 比較**의 경우를 먼저, 그리고 그것이 **제거/배제**하는 1)의 **恣意적 比較**의 경우를 나중에 표시한다) :

(1) "心理體系"/"心理記號論"/"心理力學", 과 같이 이미 用語上 三分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等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中"적/"初"적/"終"적, 과 對立되는 異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初"적/2)"中$_1$"적/3)"中$_2$"적, 에다, 1)"初"적(心理體系)/2)"中$_1$"적(心理力學$_1$)/3)"中$_2$"적(心理力學$_2$), 와 같이, 配當하여 표시한다.

그와 반대로, (異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初"적/2)"中$_1$"적/3)"中$_2$"적, 과 대립되는)等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中"적/2)"初"적/3)"終"적, 에다가

---

[40] GUILLAUME 講義錄④, pp. 99-100.

[41] 뒤(pp. 454-456 등)의 **必然적 比較/恣意적 比較** 項 참조.

는, 1)"中"적(心理力學)/2)"初"적(心理體系)/3)"終"적(心理記號論), 과 같이, 配當하여 표시한다;

(2) "人間"/"社會", "主觀"/"客觀", "分析"(理解적/넓은/一般적/항구적 : 이하 "分析"으로 통일)/"非分析"(識別적/좁은/特殊적/순간적 : 이하 "非分析"으로 통일), "非作用"/"作用", 과 같이 用語上 三分되어 있지 않고 兩分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三分化하기 위하여, 兩分된 用語를 複合시킨 第三의 用語를 만들어서, "人間·社會", "主觀·客觀", "分析·非分析", "非作用·作用", 과 같이 表示하고, 이 三分된 用語를, 위 (1)에서의 예에 따라, 異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初"적/2)"中$_1$"적/3)"中$_2$"적에다는, "1)"初"적(人間/主觀/分析/非作業)/"中$_1$"적(**人間 · 社會$_1$/主觀 · 客觀$_1$/分析 · 非分析$_1$/非作用 · 作用$_1$**)/"中$_2$"적(**人間 · 社會$_2$/主觀 · 客觀$_2$/分析 · 非分析$_2$**), 와 같이, 配當하여 표시하고, 그와 반대로, 等方向적 兩分적 連續體 : 1)"中"적/2)"初"적/"終"적, 에다는, 1)"中"적(**人間·社會/主觀·客觀/分析·非分析/非作用·作用**)/2)"初"적(人間/主觀/分析/非作業)/3)"終"적(社會/客觀/非分析/作用), 과 같이, 配當하여 표시한다.

위와 같은 요령으로, **必然적 比較** 즉 **必然적 連續體**[42]의 경우를 먼저, 그리고 그것이 **제거/배제**하는 **恣意적 比較** 즉 **恣意적 連續體**[42]의 경우를 그에 이어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Ⅰ) **必然적 連續體 :**

1) **"初"**=中$_1$+中$_2$", 즉 :

"初"적(心理體系/人間/主觀/分析/非作用)=

"中$_1$"적(心理力學$_1$/**人間·社會$_1$/主觀·客觀$_1$/分析· 非分析$_1$/非作用·作用$_1$**)+

"中$_2$"적(心理力學$_2$/**人間·社會$_2$/主觀·客觀$_2$/分析· 非分析$_2$/非作用·作用$_2$**;

2) **"中$_1$"**=初+中$_2$", 즉 :

"中$_1$"적(心理力學$_1$/**人間·社會$_1$/主觀·客觀$_1$/分析· 非分析$_1$/非作用·作用$_1$**)=

"初"적(心理體系/人間/主觀/分析/非作用)+

---

[42] 뒤(pp. 454-456 등)의 **必然적 連續體/恣意적 連續體** 項 참조.

**"中$_2$"적(心理力學$_2$/人間·社會$_2$/主觀·客觀$_2$/分析·非分析$_2$/非作用·作用$_2$),**

과 같이 되고,

**(Ⅱ) 恣意적 連續體:**

**1) "中=初+終", 즉:**

**"中"적(心理力學/人間·社會/主觀·客觀/分析·非分析/非作用·作用)=**

**"初"적(心理體系/人間/主觀/分析/非作用)+**

**"終"적(心理記號論/社會/客觀/非分析/作用);**

**2) "初=中+終", 즉:**

**"初"적(心理體系/人間/主觀/分析/非作用)=**

**"中"적(心理力學/人間·社會/主觀·客觀/分析·非分析/非作用·作用)+**

**"終"적(心理記號論/社會/客觀/非分析/作用),**

과 같이 된다.

다음에는, SAUSSURE와 MEILLET에 대한 GUILLAUME의 입장을 직접 알아 보기로 하자:

「언어학에서의 전통적인 제 분야에 머리가 젖은 사람들에게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는 觀點은, 人間 精神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제 언어가 그들의 構造 자체에 그것을 再生하는, 섬세한 幾何學적 觀點이다.

그런데, 이 觀點은 言語가 體系라는 Ferdinand de Saussure의 斷言에 내포되어 있다. 또한, "一般言語學講義"(*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가 나오기 전에, 다른 큰 언어학자들도 이 觀點을 받아들였었다. 그 중에서 Meillet를 들 수가 있는데, 그는, "一般言語學講義"가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印歐諸語의 比較硏究入門"(*Introduction à l'étude comparative des langues indo-européennes*)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점에 관한 그의 생각을 알기에 넉넉하다:《각 언어는 꽉 짜인 體系를 이루며, 고도의 엄밀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바와 같이, 언어의 전체 내용이 體系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와는 아주 달리, 그 내용의 어떠한 부분도, 그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구별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개별화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分類化(=파악)를 면치 못하며, 그 分類化(=파악)는, 각 부분에다가, 반드시 體系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각각의 特性을 유지시키면서, 그 각각의 부분의 位置를 定立 시키는 작업 내지는 言語構造라는 體系적 전체를 分節하는 작업을 한다. 예컨대 불어에서(연구가 아주 잘된 언어들의 일반적인 경우에서와 같이), 精神이

다른 觀念들과 식별하는 한 觀念은, 동시에, 한 體系내에 자리를 잡는다. 즉, 그 體系내에서, 그 觀念이 인식되는 방식이나 그 성격에 따라서, 그 觀念은 때로는 實詞, 때로는 動詞, 때로는 前置詞, 때로는 接續詞, 다시 말해서, 品詞가 되는 것이다」[43]

앞서의 예에 따라서, SAUSSURE와 MEILLET의 **體系**(système)와, GUILLAUME의 體系(système)를, 公式으로 표시하면 :

(Ⅰ) (SAUSSURE와 MEILLET의 分析되지 않은 全體(=中)으로서의 體系(=連續體/時間體/線條體 : "**體系**(=**中**)=部分$_1$(初)+部分$_2$(=終)" ;

(Ⅱ) (GUILLAUME의) 分析된(=分類化작업의 대표로서의) 部分$_1$(=初)적인 體系(=連續體/時間體/線條體) :

"**部分$_1$(=初)**=體系$_1$(=中$_1$)+體系$_2$(=中$_2$)",

와 같이 되며, 1)과 2) 각각의 테두리에서, 다시 구분하여 표시하면 :

(Ⅰ) : "**體系**(=中)=部分$_1$(=初)+部分$_2$(=終)" :

1) : "**體系**(=**中**)=部分$_1$(=初)+部分$_2$(=終)" ;

2) : "**部分$_1$**(=**初**)=部分$_2$(=終)+體系(=中)",

(Ⅱ) : "部分$_1$(=初)=體系$_1$(=中$_1$)+體系$_2$(=中$_2$)" :

1) : "部分$_1$(=初)=體系$_1$(=中$_1$)+體系$_2$(=中$_2$)" ;

2) : "體系$_1$(=中$_1$)=部分$_1$(=初)+體系$_2$(=中$_2$)",

와 같이 표시된다.

마지막으로, SAUSSURE의 "體系"(système)와 HUMBOLDT의 "根源"(genèse)에 관해서는 :

「큰 언어학자가 重大한 原理를 발견하되, 그 적용의 조건들을 그리 깊이 생각치 않는 경우, 그 原理와 맞서서, 그 적용——상당한 범위의 적용——을, 例를 들어서, 나타내는 데 유념하지 않는 경우, 는 한두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F. de Saussure가 그 경우로서, 그의 "一般言語學講義"는 상당히 엄밀하고 명쾌하게 언어가 體系라는 것을 定立하였으나, 그는 이 귀중한 斷定을 내린 후에, 언어라는 體系의 認識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과감성——또는 無謀한 대담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Saussure가, 누구나가 인정하는 比較學者의 권위를 가지고, 언어가 體系라는 것을 定立했다는 데서, 이 觀點은 그후 일반적으로 인정되었고, 오늘날 거의 논난의 여지가 없이 되었다. 그러나 그 觀點을 인정하고, 멀리서 찬양한 다음, 사람들은 거기서 그쳤고, 그 觀點에 정말로 접근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觀點에 허리를 굽혀 절을 했으나, 그 原理를 전혀 적용하지 못했다. 언어라는 體系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하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여주질 못했다. 그리고 사

[43] GUILLAUME 講義錄⑤, p. 21.

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Saussure의 "一般言語學講義"가, 언어가 組立되는 體系——엄밀히 말해서 體系들——의 分析에 적절한 **테크닉**을 하나도 제시하거나 권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Humboldt도, 언어사실은 結果 이전의 根源에서, 그 根源적 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크고 올바른 原理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아무 적절한 **테크닉**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인정은 할 수 있었던 진리의 실제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현재 언어학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언어과학의 제 원리는 인식 내지는 적어도 인지되었으나, 위에 말한 제 원리들의 발표에다 그들 원리를 사용하는 **테크닉**의 제시를 첨가하는 것을 도외시함으로써, 거기서 그치고 말았다는 특징을 가진 시대라고 생각된다. 30여년 이래, 우리의 연구가 지향해 온 것은, 이 **테크닉**의 정의와, 끊임 없는 실험에 토대한 개선을 향해서였으며, 현재로서 나는 이 **테크닉**이 더 이상 생길 여지가 없다고 말할 만큼 상당히 진전되었다고는 믿지 않고, 그 **테크닉**이, 아직 불완전하긴 하나, 끊임 없는 완성을 기약하는 형태로, 생겨났다고 생각한다.[44]

위의 말은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로,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테크닉**이 결여된 상태의) Saussure의 原理와 Humboldt의 原理 각각과, 그에 대응되는 分析된 상태의(=**테크닉**이 존재하는 상태의) 각각의 原理; 이것은 곧 原理 자체의 **分析**과 **非分析**의 짝을 의미한다. 그런데, **原理 자체**는 원래 **分析된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한 原理가 非分析 상태의 原理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가 **分析적**이어야 하는 **原理 자체의 성격**을 빗어난, **脫(分析적)原理**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原理**는 共存할 수 없는 두개의 相反된 原理 즉: (Ⅰ) **(分析적) 原理**, 와 (Ⅱ) **脫(分析적)原理**로 갈리고, 그 각각이 **分析/非分析**[45]이라는 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Ⅰ) **(分析적) 原理**는 다시 1) **分析적(테크닉이 있는) 原理**와 2) **非分析적(테크닉이 있는) 原理**로 갈리고, (Ⅱ) **脫(分析적)原理**는 다시 1) **非分析적(테크닉이 없는) 原理**와 2) **分析적(테크닉이 없는) 原理**, 로 갈린다. 이것을 지금까지의 公式의 표시방법에 따라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Ⅰ) 分析적(Saussure와 Humboldt의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原理가 배제된) 原理(=連續體):

"**原理**$_1$(=**初**)=原理$_{3_1}$(=中$_1$)+原理$_{3_2}$(=中$_2$)",[46]

---

[44] Guillaume 講義錄③, p. 224.

[45] (Ⅰ) **(分析적)原理**의 짝은 '分析'에 置重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分析/非分析'으로 표시하고, (Ⅱ) **脫(分析적)原理**의 짝은 '非分析'에 置重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非分析/分析'으로 표시함. 이하 모두에 해당됨.

[46] 이 公式에서, **原理**$_1$(=**初**)는, '分析된' **原理**$_1$/**原理**$_2$(=**初/終**) **連續體**를 나타내

와 같이 되며, (Ⅰ)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分析/非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 "**原理**$_1$(=**初**)=原理$_{3_1}$(中=$_1$)+原理$_{3_2}$(=中$_2$)", 즉 : **分析된**(테크닉이 있는) **原理의 公式** ;

2) : "**原理**$_{3_1}$(=**中**$_1$)=原理$_1$(=初)+原理$_{3_2}$(=中$_2$)", 즉 : **非分析된**(테크닉이 있는) **原理의 公式**,

와 같이 된다.

(Ⅱ) **脫 分析적**(SAUSSURE와 HUMBOLDT의 **分析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原理**(=**連續體**) :

"**原理**$_3$(=**中**)=**原理**$_1$(=**初**)+**原理**$_2$(=**終**)",[47]

과 같이 되며, (Ⅱ)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非分析/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 "**原理**$_3$(=**中**)=**原理**$_1$(=**初**)+**原理**$_2$(=**終**)", 즉 : **非分析된**(테크닉이 없는 **原理의 公式** ;

2) : "**原理**$_1$(=**初**)=**原理**$_2$(=**終**)+**原理**$_3$(=**中**)", 즉 : **分析된**(테크닉이 없는)**原理의 公式**

과 같이 된다.

**둘째**로는, 위의 "原理"(連續體)의 公式에 대응하는, "原理"의 적용을 받은 "言語"(=連續體)의 公式도, **첫째**의 公式에 준하여, 표시될 수 있다. 이것은 곧, "原理의 連續體"의 公式에 대응되는 "言語의 連續體"의 公式이 된다("中"="體系" ; "初"="部分$_1$" ; "終"="部分$_2$"로 표시하면) :

(Ⅰ) 分析적(SAUSSURE와 HUMBOLDT의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原理가 배제된) "原理의 連續體"의 公式에 대응되는, 역시 分析적 "言語의 連續體"의 公式 :

"**部分**$_1$(=**初**)=體系$_{(3)_1}$(=中$_1$)+體系$_{(3)_2}$(=中$_2$)",

과 같이 되며, (Ⅰ)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分析/非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

고, **原理**$_3$/**原理**$_{3_2}$(=**中**$_1$/**中**$_2$)는, '分析 안된' **連續體** : '**原理**$_{3_1}$(=**中**$_1$)+**原理**$_{3_2}$(=**中**$_2$)'를 나타냄으로써, 서로 구별 표시된다. 이하 모두에 해당된다.

[47] 이 公式에서, **原理**$_3$(=**中**)은, '分析 안된' **連續體**를 나타내고, **原理**$_1$/**原理**$_2$(=**初**/**終**)은, '分析된' **連續體** : '**原理**$_1$(=**初**)+**原理**$_2$(=**終**)'를 나타냄으로써, 서로 구별 표시된다. 이하 모두에 해당된다.

1) "部分$_1$(=初)=體系$_{(3)_1}$(=中$_1$)+體系$_{(3)_2}$(=中$_2$)", 즉 : **分析된 言語의 公式**;

2) "體系$_{(3)_1}$(=中$_1$)=部分$_1$(=初)+體系$_{(3)_2}$(=中$_2$)", 즉 : **分析된 言語의 公式**,

과 같이 된다.

(Ⅱ) **脫分析적**(SAUSSURE와 HUMBOLDT의 **分析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의**) "**原理의 連續體**"에 대응하는, 역시 **脫分析적 "言語의 連續體"의 公式** :

"體系$_{(3)}$(=中)=部分$_1$(=初)+部分$_2$(=終)",

과 같이 되며, (Ⅱ)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非分析/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體系$_{(3)}$(=中)=部分$_1$(=初)+部分$_2$(=終)", 즉 : **非分析된 言語의 公式**;

2) "部分$_1$(=初)=部分$_2$(=終)+體系$_{(3)}$(=中)", 즉 : **分析된 言語의 公式**,

과 같이 된다.

마지막으로, GUILLAUME의 言語學觀을 잘 들어낸 말을 인용하면 :

「언어학은 하나의 기대 : 언어 자체가 무엇인가를 언어학에 의해서 더 잘 알려는 기대, 를 불러 이르켰다. 사람들은 이 지식을 起源의 방향으로의 소급에서 기대했다. 이 소급은 언어의 한 상태에 선행하는 상태가 대응되며, 후행하는 것을 선행하는 것으로 부터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후행으로 부터 선행으로의〕 계속적인 이 옮김에서는 인간의 언어의 성격에 관한 아무런 빛도 드리우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인 관찰 방법으로 후행에서 선행으로 소급함에 따라, 언어의 성격의 문제는 흐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불어로 부터 인구어중의 하나로의 소급——비교문법의 보통의 방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소급——은, 언어의 성격에 대한 아무런 관련성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는 범어학자가 단순한 불어학자 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오히려 언어의 성격에 대한 통찰은, 범어의 연구의 테두리에서 보다 불어의 연구의 테두리에서, 더 쉽고 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런 모순 없이, 주장할 수가 있다.[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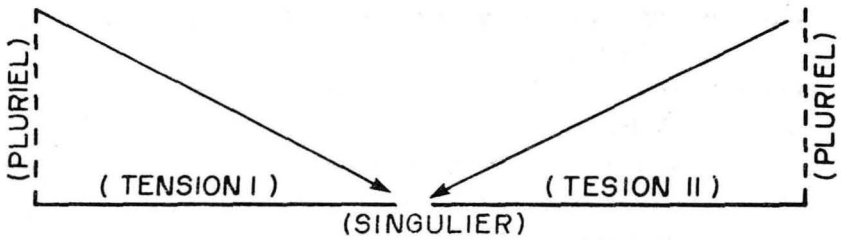
이어서 "數의 범주"와 "冠詞의 범주", 나아가서 GUILLAUME의 소위 "(異方向적 : 一般에서 特殊로, 特殊에서 一般으로의) 二重運動 連續體"를 나타내는 부채꼴 그림[49]을 아래에 옮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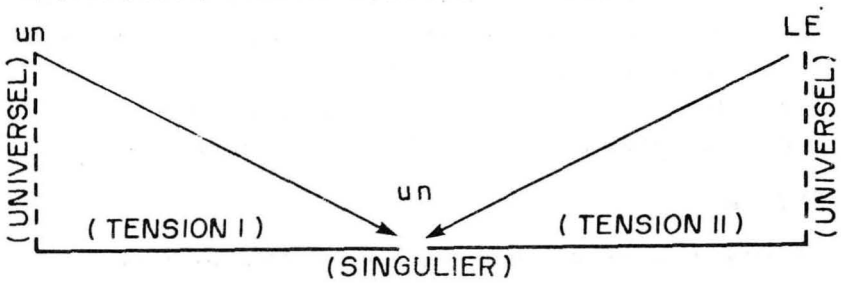
[48] GUILLAUME 講義錄④, p. 234.

[49] GUILLAUME 講義錄⑤, p. 25.

1) **數의 범주**(***pluriel**=복수 ; **singulier**=단수 ; **tension**=장력) :




2) **冠詞의 범주**(***universel**=보편 ; **singulier**=특수) :




이에 대응되는 화살표시의 그림은 :

1) **數詞의 범주** :

$S_1 \longrightarrow U_1 \mid U_2 \longrightarrow S_2$ ;

2) **冠詞의 범주**

$U_1 \longrightarrow S_1 \mid S_2 \longrightarrow U_2$

위 그림에서, 1) **數詞의 범주**의 그림은, 같은 "(異方向의) 二重運動 連續體"의 그림의 테두리에 속하는 2) **冠詞의 범주**의 그림에 비하여, **分析 안된** 그림에 속한다. 1)과 2)는 따라서, "非分析/分析"의 짝을 이룬다. 이와 같이 "分析/非分析"의 짝을 가진(**異方向의**) **二重運動 連續體**[50]는, 역시 "分析/非分析"의 짝을 가진 (**等方向의**) **脫二重運動 連續體**[50]와 대립된다. 여기에 GUILLAUME의 위 그림, 내지는 理論의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I) GUILLAUME **著書目錄**[51] :

1) 主著 :

(1911) *Études de grammaire logique comparže. Les passés de l'indicatif français, allemands et russes*, Paris, Fischbacher.

---

[50] 앞의 해당 페이지(pp. 454-456) 참조.

[51] 本目錄은 기본적인 것과 앞에서 인용된 것에 국한시킴. 기타 상세한 目錄에 관해서는 뒤 目錄 (II)의 1) : GUIRAUD(1970), p. 6 및 MOIGNET(1967), pp. 101-104; CURAT/MENEY(1983) 참조.

(1912/1913) *Études de grammaire française logique, Le lieu du monde dans je temps, dans l'espace*: fasc. I: *L'article*; fasc. II: *Lee temps*, Paris, Fischbacher.

(1919/1975) *Le problème de l'artiele et sa solution dans la langue française.* (Paris: Hachette), p. 319.

(1929) *Temps et verbe* (Paris: Champion), p. 134.

(1945) *L'architectonique du temps dans les langues cjassiques* (Copenhagen: Munksgaard), p. 66.

(1965/1970)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s, des modes et des temps suivi de L'architectonique du temps dans les langues classiques*, Avant-propos de Roch Valin(Paris: Champion).

(1964/1973) *Langege et science du langage* (Paris: Nizet; Quebec: Presses de l'Universite de Laval), p. 286 (生前의 論文選集).

2) **講義錄**:

① *Leçons de linguistique*, 1948~49,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publiés par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1971.

② *Leçons de linguistique*, 1948~49, série B.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Principes, méthodes et opplications I*, publiées par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1971.

③ *Leçons de linguistique*, 1948~49, série C, *Grammaire particulière du français et grammaire générale IV*, publiées par R. Valin,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 et Paris, Klincksieck, 1973.

④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recueil de textes inédits préparé en collaboration sous la direction de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1973.

⑤ *Leçons de linguistique*, 1949~50,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I*, publiées par R. Valin, Québec, Presses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1974.

⑥ *Leçons de linguistique*, 1956~57, *Systèmes linguistiques et succesivité historique des systèmes II*, publiées sous la direction de Roch Valin, Walter Hirtle et André Joly, Que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79.

⑦ *Leçons de Linguistique*, 1945~1946, série C, *Grammaire particulière*

*du français et grammaire générale* (*I*), publiées sous la direction de R. Valin, W.H. Hirtle et A. Joly,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Lille, 1985.

⑧ *Leçons de Linguistique*, 1945~1946, série A, *Esquisse d'une grammaire descriptive de la langue française IV*, publiées sous la direction de R. Valin, W.H. Hirtle et A. Joly,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Lille, 1987.

(Ⅱ) **必然적**(=GUILLAUME적) **連續體觀**과 **恣意적 連續體觀**의 **必然적 比較**[52]에 관한 것 :

VALIN, Roch/WAGNER, R.-L. (1964/1973) *Introduction/Avant-propos* de Gustave GUILLAUME, *Langage et Sciences du langage*, A.-G. Nizet et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pp. 11-24-pp. 8-10.

EICH, Christoph(1960) 《Gustave Guillaume, 1883~1960》, *Vox romanica*, XVIII, 2.

MOIGNET, Gérard(1967) Bibliographie des travaux de linguistique française d'inspiration guillaumienne, *Langage*, n°7, pp. 101-104.

VALIN, Roch(1971) *Introduction* (Leçone de linguistique de Gustave Guillaume: 1948~1949,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Paris/Quebec, pp. 9-58.

VALIN, Roch(1975) *Préface* (Gustave Guillaume, Le problème de l'article et sa solution frai çase), Paris/Quebec, pp. 1-13.

GUIRAUD, Pierre(1970) 《Gustave Guillaume and Generative Grammar》, *Language Sciences*, Indiana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the Language Sciences, N°10, April, pp. 1-5.

GUIRAUD, Pierre(1974/1985) La Grammaire, *coll. Que sais-je?*, P.U.F., pp. 88 et suiv.

WILMET, Marc(1972) 《Guillaume avant Saussure》, *Le langage et l'homme*, N°20, Bruxelles, pp. 18-24.

WILMET, Marc(1978) Gustave Guillaume et son école linguistique, Paris/Bruxelles.

HIRTLE, W.H(1973) 《Structure du mot et structure syntaxique》, *Grammaire Générative Transformationnelles et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ubli-

[52] **必然적 連續體觀**이 **恣意적 連續體觀**을 제거/배제한다는 觀點에서의, 兩者의 **比較**를 말함. 이하 모두 이러한 뜻으로 사용함.

cation de l'Université de Lille III, pp. 15-27.

Wunderli, P.(1974)《Zur Saussure-Rezeption bei Gustave Guillaume und seiner Nachfolge》, *Historiographia Linguistica*, vol. 1, Amsterdam, pp. 27-66.

Le Langage(sous la direction de Bernard Pottier)(1973), Paris, p. 177, 355, 520, 535.

Hervé Curat/Lionel Meney(1983) ***Gustave Guillaume et la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 (Bibliographie annotée)***, ***Cahiers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및

뒤 (Ⅲ)의 "**必然적**(=Guillaume적) **連續體觀**과 **恣意적 連續體觀**의 **恣意적 比較**"에 관한 모든 **著作目錄**을 **제거/배제**하는, **必然적 比較**에 관한 모든 **著作目錄**.

(Ⅲ) **必然적**(=Guillaume적) **連續體觀**과 **恣意적 連續體觀**의 **恣意적 比較**[53]에 관한 것 :

Saussure, Ferdinand de(1916/195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Meillet, Antoine(1931) Compte rendu: ***Temps et verbe***(1929), ***BSLP***. 31:1-2.

Mounin Georges(1972) la linguistique du XXe siècle, Paris, P.U.F., p. 9.

Fuchs, C., Le Goffic, P.(1975) Initiations aux linguistiques contemporaines, Hachette, Paris, pp. 52-61.

및

뒤의, "**必然적**(=Tesnière적) **連續體觀**과 **恣意적 連續體觀**의 **恣意적 比較**" 및 "**恣意적**(=Benveniste적) **連續體觀**의 테두리 안에서의 **恣意적 比較**", 그리고, "**恣意적**(=Hjelmslev/Uldall적) **連續體觀**의 테두리 안에서의 **恣意적 比較**", 에 관한 모든 **著作目錄**.

2.2. Lucien Tesnière(**1893~1954**):

Lucien Tesnière는, Guillaume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潮流에 역행하는 觀點 때문에, 너무 일찍 불리한 시기에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그의 死後에 出刊된 "構造統辭論 原理"(*É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ESS*)는 1959년에 出刊되었다(Paris, C. Klincksieck). 開拓者로서는 너무 늦다고 할지 모르나, 이 책은 그의 死後의 出刊이며, 그 草稿는 이미 제2차 대전 이전에 이루어졌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그의 새로운 방법론을 요약한 "構造統辭論 槪要"(*Esquisse d'une syntaxe structurale*)(Paris, Klincksieck, 1953)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 방법론은 이미 오래전에 着想되었던 것이며, 1933

[53] **必然적 連續體觀**이 **恣意적 連續體觀**을 **제거/배제**한다는 觀點이 결여된, 兩者의 **比較**를 말함. 이하 모두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함.

년에 *Strasbourg*대학 문학부 論叢에 실린 論文 : "統辭論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Comment construire une syntaxe*)에 그 설명이 나온다. 같은 해 TESNIÈRE는 그의 原理의 첫 적용으로 "小型 러시아어 文法"(*Petite grammaire russe*)(Paris, Didier)을 出刊했다. 그러므로, 1959년의 *ESS*는 그것이 出版되기 25년도 더 되는 1930년대에 이미 着想되어 출범한 작품이다. 따라서 그것은 필생의 著作으로서, 20여개의 언어에서 따온 수천의 例들이 있는, 국판(8°) 670페이지에 달하는 大著이다.[1]

TESNÈRE의 統辭論의 특징은, 무엇 보다도, 統辭論을 그림 즉, "골격"(**stemma**)(="나무 그림")으로 표시하는 데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TESNIÈRE는 "**나무 그림**"의 첫 創案者라고 할 수 있다. TESNIÈRE 자신이 술회한 바에 의하면, 이 "골격"(stemma)(=나무 그림)의 着想은 정확히 1932년 6월이었다고 한다.[2] 그러므로, TESNIÈRE의 統辭論의 성격은, 이 그림/골격(stemma)/나무 그림 (∧)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림/골격(stemma)/나무 그림을, 앞의 GUILLAUME의 項에서, **二重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와 **脫二重적 連續體(時間體/線條體)**의 구분 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1) "初→中→終" 連續體(時間體/線條體)에서, "初"에서 "終"에 이르는 **貫通(通過)地域**으로서의 "中"과, 그 通過(貫通)의 **初發點**과 **終着點**으로서의 "初"와 "終"에 대한, **單一(次元)적** 즉 **脫二重적**이 아닌, **二重性적**인 성격을 가진 그러한 **골격(stemma)** 즉 **나무 그림**인가, 또는,

2) "1)"과는 반대로, **單一(次元)적** 즉 **脫二重적**인 성격의 **골격(stemma)** 즉 **나무 그림**인가, 를 검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앞서에서 행한 바와 같이, 골격(stemma) 즉 나무 그림으로 표시되는 連續體를,

(Ⅰ) 1) **分析되지 않은** "中", 즉 골격(stemme)/나무 그림( )의 **頂點**을 **出發點**으로 하는 **골격체**(連續體/時間體/線條體)( )와; 2) **分析된** "初/終", 즉 골격(stemma)/나무 그림( )을 거꾸로 한 골격(stemma)( )의 兩端을 **頂點(出發點)**으로 하는 **골격체**(連續體/時間體/線條體)의 **二重적(分析적) 골격체(連續體/時間體/線條體)**()( )[3], 그리고,

---

[1] 뒤(續 〈=完〉편)의 **必然적**(=TESNIÈRE적) **連續體觀** (Ⅱ)의, **必然적 比較**에 관한 **目錄** : GUIRAUD(1971), pp. 1-6 참조.

[2] *ESS*(=TESNIÈRE: 1959), p. 15, 脚註 1 참조.

[3] **二重적(分析적) 골격체**는, '分析'에 力點을 두는 '分析/非分析'의 짝으로 된, **異方向적 골격체(連續體)**이므로(앞 : pp. 454-455 참조) 그 '分析/非分析'의 짝과 '異方向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는 線**으로 된 **分析**'( )/'**굵은 線**으로 된 **非分析**'( , 그리고, 그 **分析**( )과 **非分析**()의 **異方向의 화살 표시**()로써, 나타낸다. 이하 모두에 해당된다. 이것이 곧 **必然적=異方向적** 개념이다.

**(II)** 그와 반대로, 위 1)의, **分析되지 않은** "中"을 頂點(出發點)으로 하는 **골격체**(連續體/時間體)( )만이 있고, 2)의, **分析된** "初"/"終"을 **頂點**(**出發點**)으로 하는 **골격체**(連續體/時間體)()를 缺한, "짝이 없는" **脫二重적**(**脫分析적**) **골격체**(**連續體/時間體**)( )[4], 로 分類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골격체**(連續體/時間體)는, 그 보다 下位의(구체적인) **언어의 連續體**(**時間體/線條體**) 즉, 실제의 골격체를 **그림으로**(**추상적으로**) 나타낸, 上位의 **理論의 連續體** 즉, **잠재적 골격체**이므로, 이 **理論/언어**의 두 連續體는 **上/下**의 짝으로서의 連續體가 된다. 그런데, 위 (I)의 **二重적**(**分析적**) **잠재적 골격체**(理論의 連續體)( )는, **(II)**의 **脫二重적**(**脫分析적 잠재적 골격체**(理論의 連續體)( )와 相反·對立됨으로, (I)과 **(II)**의 **잠재적 골격체**(**理論의 連續體**)는, 각각, 그에 대응되는 **실제의 골격체**(**언어의 連續體**), 즉 : (I) **二重적**(**分析적**) **실제의 골격체**(**언어의 連續體**)( )와, **(II) 脫二重적**(**脫分析적**) **실제의 골격체**(**언어의 連續體**)( ), 와 連結되면서, 상호 대립된다고 할 수 있다. 즉, (I) **二重적**(**分析적**) **잠재적 골격체**(**理論의 連續體**)( )는, (I) **二重적**(**分析적**) **실제의 골격체**(**언어의 連續體**)( )와 連結되어, **(II)** 脫二重적(脫分析적)(**잠재적 골격체**(**理論의 連續體**)( )와 **(II) 脫二重적**(**脫分析적**) **실제의 골격체**(**언어의 連續體**)( )와의 連結과, 서로 **배타적인 공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理論/言語의 連續體**(여기서는 TESNIÈRE의 경우)가 (I)에 속하느냐 **(II)**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함에는, 理論의 설명 뿐만이 아니라, 그 理論의 설명에 사용된 言語의 例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그림에 관하여 위에서 설명한 바를 정리하면 :

(I)과 **(II)**를, 지금까지의 例에 따라서, 公式으로 나타내는 데 있어, 숫자 번호(1/2/3)를 써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된다.

(I)의 **二重적 골격체**를 ( )와 같이 숫자 배치를 한

[4] **脫二重적**(**脫分析적**) 골격체는, **'非分析'**에 力點을 두는 **'非分析/分析'**의 짝으로 된, **等方向적 골격체**(**連續體**)이므로(앞 : p. 455 참조), 그 **'非分析/分析'**의 짝과 **'等方向性'**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二重적**(**分析적**) 골격체와의 **必然적 比較**(앞 : pp. 454-456 참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두 다 **'굵은 線으로 된 分析/非分析'**( )으로 나타내고, 그 **分析**( )과 **非分析**( )의 **等方向의** (=**한 군데로 모이는**) **화살 표시**()로써 나타낸다. 이하 모두에 해당된다. 이것이 곧 **恣意적=等方向적** 개념이다.

것은, 叉交(通過/貫通)地域으로서의 (${}_{2}3_{1}$)에서 脫二重적(=非分析적)인 것이 完全히 除去되어, 完全한 **對角線**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고, (II)의 **脫二重적 골격체**를 ($\overset{{}_{1}3_{2}}{{}_{1}\nearrow\nwarrow_{2}}$, 즉 : $\underset{{}_{1}3_{2}}{{}^{1}\searrow\swarrow^{2}}$ $\overset{{}_{1}3_{2}}{{}_{1}\nearrow\nwarrow_{2}}$, 즉 : $\underset{1\nearrow\,\nwarrow 2}{\overset{1\searrow\,\swarrow 2}{{}_{1}3_{2}}}$ )와 같이 숫자 배치를 한 것은, **交叉(通過/貫通)地域**으로서의 (${}_{1}3_{2}$)에서, 脫二重적(=非分析적)인 것이 除去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非(또는 脫)對角線**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 I ) (分析된) 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underset{{}_{2}3_{1}}{{}^{1}\nwarrow\vee\nearrow^{2}}$ $\overset{{}_{2}3_{1}}{{}_{2}\swarrow\searrow}$ 즉 :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_{2}3_{1}}}$ ) :

"初(頂點/出發·到着點)(${}^{1}\nwarrow\vee\nearrow^{2}$ 및 ${}_{2}\swarrow\searrow_{1}$ 즉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times}}$)=中$_1$(交叉·通過·貫通地域$_1$) (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中$_2$(交叉·通過·貫通地域$_2$) (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 즉 : (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_{2}3_{1}}}$ ),

와 같이 되며, ( I )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分析/非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初(${}^{1}\nwarrow\vee\nearrow^{2}$ 및 ${}_{2}\swarrow\searrow_{1}$ 즉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times}}$)=中$_1$(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中$_2$(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 즉 : (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_{2}3_{1}}}$ ),

2) "中$_1$(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初(${}^{1}\nwarrow\vee\nearrow^{2}$ 및 ${}_{2}\swarrow\searrow_{1}$ 즉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times}}$)+中$_2$( $\underset{\swarrow\,\searrow}{\overset{\nwarrow\,\nearrow}{{}_{2}3_{1}}}$ )", 즉 : (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_{2}3_{1}}}$ ),

과 같이 된다.

**(II) (分析 안된) 脫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underset{{}_{2}3_{1}}{{}^{1}\nwarrow\vee\nearrow^{2}}$ $\overset{{}_{2}3_{1}}{{}_{2}\swarrow\searrow_{1}}$ 즉 : $\underset{2\swarrow\,\searrow 1}{\overset{1\nwarrow\,\nearrow 2}{{}_{2}3_{1}}}$ 가 아닌, $\underset{{}_{1}3_{2}}{{}^{1}\searrow\swarrow^{2}}$ $\overset{{}_{1}3_{2}}{{}_{1}\nearrow\nwarrow_{2}}$ 즉 : $\underset{1\nearrow\,\nwarrow 2}{\overset{1\searrow\,\swarrow 2}{{}_{1}3_{2}}}$ ) :

**"中(交叉·通過·貫通地域)( $\underset{\nearrow\,\nwarrow}{\overset{\searrow\,\swarrow}{{}_{1}3_{2}}}$ )=初(頂點/出發點)(${}^{1}\searrow\swarrow^{2}$) + 終(非頂點/終着點)(${}_{1}\nearrow\nwarrow_{2}$)"**, 즉 ( $\underset{1\nearrow\,\nwarrow 2}{\overset{1\searrow\,\swarrow 2}{{}_{1}3_{2}}}$ ),

와 같이 되며, (**II**)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非分析/分析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中( $\underset{\nearrow\,\nwarrow}{\overset{\searrow\,\swarrow}{{}_{1}3_{2}}}$ )=初(${}^{1}\searrow\swarrow^{2}$)+終(${}_{1}\nearrow\nwarrow_{2}$)"**, 즉 : ( $\underset{1\nearrow\,\nwarrow 2}{\overset{1\searrow\,\swarrow 2}{{}_{1}3_{2}}}$ ) ;

2) "初()=終()+中()", 즉 : ()

과 같이 된다.

위 (I)의 (分析된) 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에 대응하는, (I)의 (分析된) 二重적(실제의/언어적) 골격체(에서 숫자 표시를 언어의 표시로 가정함)와, (II)의 (**分析 안된**) **脫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에 대응하는, (II)의 (**分析 안된**) **脫二重적**(실제의/언어적) 골격체(에서 숫자 표시를 언어의 표시로 가정함)의, 公式은, 각각, 그에 대응하는 (I) 및 (II)의 **잠재적/이론적 골격체**의 公式을 그대로 대용할 수 있다. 즉 :

(I) (**分析된**) **二重적**(실제의/언어적) **골격체**(에서, 숫자 표시를 언어의 표시로 가정함)의 公式 : 그에 대응되는 (I) (**分析된**) **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의 公式을 대용함 ;

(II) (**分析 안된**) **脫二重적**(실제의/언어적) **골격체**(에서 숫자 표시를 언어의 표시로 가정함)의 公式 : 그에 대응되는 (II) (**分析 안된**) **二重적**(잠재적/이론적) **골격체**( )의 公式을 대용함.

다음에, TESNIÈRE 자신의 理論의 설명과 그 理論의 설명에 사용된 언어의 예에서, TESNIÈRE의 골격체(連續體/時間體), 즉 **理論의 連續體** 또는 **言語의 連續體**의 성격을 알아 보기로 한다 :

먼저, "統辭論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Comment construire une syntaxe*)에서,

「19세기의 비교문법의 開花는 음성학과 형태론에 견고한 기초를 제공하여, 적어도 그 큰 윤곽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데두리를 그들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統辭論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Guillaume de Humboldt가 **내부 언어형식**(innere Sprachform)의 존재를 잘 **느꼈음**에 반하여, 아무도 그 개념을 정밀화하거나

그 내용을, 분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Le livre de Pierre"(Pierre의 책)는 나전어에서 "Liber Petri"라고 한다. 표현된 관계가 동일함으로, 두 언어에서 동일한 통사적 사실을 앞에 놓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불어 통사론과 나전어 통사론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연구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불어 문법은 그것을 전치사의 통사론에서, 그리고 나전에 문법은 그것을 격의 통사론에서 설명한다. 그것은 통사론을 그 자체로서 파악하는 대신에, 그 형태론적 수단만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경험은, 통사론을 형태론의 지배에서 끌어내어 그것을 그 고유의 존재 이유와, 그 고유의 법칙, 그 고유의 설계도를 가진, 독립된 분야로 삼기 위해서, 어떠한 토대위에 서야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방법은 우선 통사론적 사실들을 언어마다, 구조마다 역사를 생각 말고, 그들 통사적 사실을 파악하고 정밀화하고, 그 성격과 그 정체를 한정할 수 있도록, 직접 비교함으로써, 遊離시키는 데 있다. 통사론적 사실들만을 우리들의 채에 걸른 것이 확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슷한 것들을 비교하고, 그 비슷한 것들을 그 관계에 의하여 배열하고, 부분적인 떼(群)를 발견하고, 이어서, 우리에게 건축 전체의 구조를 認知하고 體系의 일반적인 질서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5]

여기서 간추릴 것은, "채에 걸러서 分析된 상태의" **통사론**과, "채에 걸른 찌꺼기로서의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형태론**, 그리고 "채에 걸르는 작업"에 해당되는 **비교작업**,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형태론**을 **위주**로 하던 19세기의 **비교문법**에 대립시켜서, "分析된 상태의" **통사론**을 **위주**로 하는 **비교작업**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곧 **통사론**과 **형태론**을, 앞에서 본,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SAUSSURE 및 HUMBOLDT의 원리와, 그와 공존할 수 없는 "分析된 상태의" 原理의 경우에서와 똑같은 公式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6] 즉:

(I) 통사론적(分析되지 않은 찌꺼기로서의 형태론이 채에 걸러져서 배제된) 連續體:

"통사론$_1$(=初)($^{1}\nwarrow\nearrow^{2}$ 및 $_{2}\swarrow\searrow_{1}$ 즉 $\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형태론$_1$(=中$_1$)($\begin{smallmatrix}\nwarrow & \nearrow\\ {}_{2}3_{1} & \\ \swarrow & \searrow\end{smallmatrix}$)+형태론$_2$(=中$_2$)($\begin{smallmatrix}\nwarrow & \nearrow\\ {}_{2}3_{1} & \\ \swarrow & \searrow\end{smallmatrix}$)", 즉: ($\begin{smallmatrix}1\nwarrow & \nearrow 2\\ {}_{2}3_{1} & \\ 2\swarrow & \searrow 1\end{smallmatrix}$), 와 같이 되며,

(I)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統辭論/形態論'의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5] TESNIÈRE(1933), pp. 219-220.

[6] 앞(pp. 454-455)의 公式 참조.

1) "통사론$_1$(=初)() 및  즉 )=형태론$_1$(=中$_1$)()+형태론$_2$(=中$_2$)()", 즉 : ();

2) "형태론$_1$(=中$_1$)()=통사론$_1$(=初)() 및  즉 )+형태론$_2$(=中$_2$)()", 즉 : ()

과 같이 된다.

**(II) 형태론적(分析되지 않은 찌꺼기로서의 형태론 그대로의) 連續體 :**

"**형태론**$_{(3)}$(=**中**)( )=**통사론**$_1$(=**初**)()+**통사론**$_2$(=**終**)()", 즉 : ();

와 같이 되며, (**II**)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形態論/統辭論'의 짝으로 구분하여서 표시하면 :

1) "**형태론**$_{(3)}$(=**中**)()=**통사론**$_1$(=**初**)()+**통사론**$_2$(=**終**)()", 즉 : (),

2) "**통사론**$_1$(=**初**)()=**통사론**$_2$(=**終**)()+**형태론**$_{(3)}$(=**中**)()", 즉 : (),

과 같이 된다. 따라서, **통사론/형태론/비교(=連結)**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것으로써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의 二重運動적(分析적) (이론/언어의) 골격체( )의 公式과 (**II**)의 **脫二重運動적(非分析적) 골격체**()**의 公式**에서, 본 바와 같은, 상호 배타적인 공존/連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또 : ① **기능 통사론**(syntaxe)과 ② **범주 통사론**(syntaxe catégerique). ① **動力적 통사론**(syntaxe dynamique)과 ② **靜態적 통사론**(syntaxe statique); ① **종속화 요소**(subordonnant), ② **종속요소**(subordonné), ③ **支配요소**(régissant); ① **移轉核**(translatif), ② **被移轉核**(transférende), ③ **移**

**轉·被移轉連續核**[7](transféré); ① **移轉요소**(transférème)와 ② **頭語反覆요소**(anaphorème), ① **出發項**(discordantel)과 ② **終着項**(forclusif)[8], 의 짝에서 보는바, "分析되지 않은 상태의" 連續體와 "分析된 상태의" 連續體의, **상호 배타적 공존**은, 단순히 그것으로써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分析된 二重적(이론적/언어적) 連續體의 公式과 (II) 分析 안 된 脫二重적(이론적/언어적) 連續體의 公式**의, **상호 배타적 공존**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짝"에서 **기능통사론과 범주통사론, 動力통사론과 靜態통사론**에 관해서는 :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범주통사론**(syntaxe catégorique)과 **기능통사론**(syntaxe fonctionnelle)을 구분한다(…). 비유를 들어 더 자세히 생각을 정리하면, **범주통사론**의 사실들은 砲臺에 배열된 대포들에 비교되고, **기능통사론**의 사실들은 發射의 位置에 놓인 같은 대포에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또 전자는 인쇄공의 活字상자에 배열된 活字에 비교되고, 후자는 같은 活字가 行으로 植字되어 인쇄를 위해서 組版이 되어 있는 것에 비교된다.

이렇게 인식되고 구분된 통사론은 문장이라는 **기계**의 참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문장은 진짜 기계와 똑 같이, 하나의 **상태**(범주의 연구)와 하나의 **動力**(기능의 연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9]

다음에는 **支配요소, 종속요소, 종속화요소**에 관해서 :

「한 문장은 太陽系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심에는, 마치 태양이 太陽系의 중심에 있는 것 처럼, 모든 조직을 支配하는 동사가 있다. 주변에는, 마치 惑星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衛星들이 惑星들의 주변을 운행하는 것과 같이, 수 많은 문법 요소들이, 여러 층의 등급으로, 상호간에 최종적으로는 동사에 **종속화**되어 있다. 물론, **문장의 보편적인 이 重(引)力** 작용에서, 모든 종류의 **支配요소**와 **종속요소**와 나란히, **종속화요소** 즉 그 자체가 **支配요소**도 **종속요소**도 아닌, 따라서, 다른 요소들의 **종속화**를 표시함을 그 임무로 하는, **종속화요소**를 위한 자리를 하나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留保조건을 둘 때, 모든 문장은 그 관계(connexion)의 등급을 가리키는 골격(stemma)으로 표시될 수 있다.」[10]

다음에는 **移轉·被移轉連續核**(transféré), **被移轉核**(transférende), **移轉核**(translatif)에 관해서 :

---

[7] **二重運動(移轉/分析)적 連續體**와 **脫二重運動(脫移轉/脫分析)적 連續體**를 구별 표시하기 위하여, **移轉·被移轉 連續核**과 **移轉被移轉 複合核**으로 用語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이하 모두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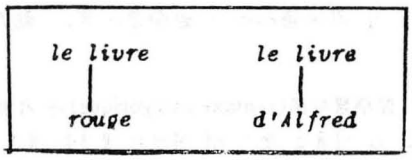
[8] TESNIÈRE(1933), pp. 221-223 및 TESNIÈRE(1959), p. 225 참조.

[9] TESNIÈRE(1933), pp. 221-222 참조.

[10] TESNIÈRE(1933), p. 223.

**이전**(La Translation). le livre rouge(붉은 책)이라는 무리에서, 부각적 형용사 rouge(붉은)는 그 책의 성격들 가운데 하나를 정밀화하여, 그 책을 다른 책들, 예컨대 푸른 책 또는 파란 책, 과 구별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la livre d'Alfred(철수의 책)라는 무리에서, d'Alfred(철수의)라는 요소는 그 책의 성격들 가운데 하나를 정밀화하여 그 책을 다른 책들, 예컨대 철의 책 또는 영이의 책, 과 구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d'Alfred(철수의)라는 요소는 rouge(붉은)라는 부가적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Alfred (철수)는 **실 명**사이다. d'Alfred(철수의) 가 형용사 처럼 기능하는 것은 de(의)가 그것을 형용사로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변형에 대하여 **이전**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저 한다.

**이전**은 하나의 문법범주의 단어를 다른 하나의 문법범주의 단어로 옮기는, 즉 한 종류의 단어를 다른 한 종류의 단어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서, 실 명사 Alfred (철수)는 형용사 : d'Alfred(철수의)가 되어, 기호로는 : O>A가 되었다.

범주의 변화는 자연히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 d'Alfred(철수의)라는 무리는 더 이상 주체로서가 아니라, 부가적 형용사로서 행동한다.

**이전의 요소**(Facteurs de la Translation). 모든 이전은 세가지의 요인들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피 이전 핵**(transférende), **이전·피이전 연속핵**(transféré), **이전핵**(translatif)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피 이전 핵**(transférende)은 이전에 맡겨지는 핵이고, **이전·피이전 연속핵**(transfére)은 위와 동일한 핵으로써, 이전이 그 핵을 새로운 종류의 핵으로 옮긴 후 의 핵 : d'Alfred(철수의)이고, 마지막으로, **이전 핵**(translatif)은 이전의 도구 : de(의)이다. 그것은 언제나 **피 이전핵**의 바로 근처에 위치하며, 언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앞에 놓이거나(전치사). 뒤에 놓인다(후치사). 그것은 **핵 내부적**이다.

**도식적 표시**(Représenation Graphique). 우리는 이전을 $\mathcal{T}$(이전 : translation, 의 첫 글자)로써 표시하는데, 이 글자의 형태는 이전의 세 요인을, 훌륭하게 도식적으로 배치하게 해주는 이점을 제공해 준다. 즉, **피 이전 핵**과 **이전 핵**을 $\mathcal{T}$의 수평선 밑에 다, 그리고 **이전·피이전 연속핵**을 그 위에다 놓는다. 이전 핵은, 그것이 만일 전치사이면, $\mathcal{T}$의 작대기 왼편에다 놓고, 만일에 후치사이면, 오른편에다 놓는다. 그리고 이전, 피이전 연속핵은 그와는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치는 선조적 순서를 반영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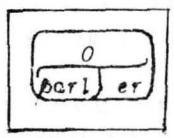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골격은 말의 연쇄에 포함된 단어들을 한번만 나타내야 하므로, 이전되는 요소들만이, 그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 피 이전핵이 이전핵을 수반하는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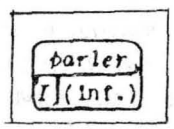
식으로나, 또는 이전·피이전 연속핵의 형식으로, 골격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전의 $\mathcal{T}$의 수평의 작대기의 위 또는 아래에만 나타난다는 말이 된다. 이 작대기의 채워지지 않은 쪽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만 그들의 기호로써 표시된다.

예컨대, la livre d'Alfred(철수의 책)이라는 무리는 아래와 같은 골격을 제공한다.

이전 핵은 또한 피 이전핵에 병합될 수가 있으며, 이때 이전핵은 특수한 형태를 이룬다. 실 명사로 이전된 동사인 부정법의 경우가 곧 그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전·피이전 연속핵을 골격에다 나타내며, 물론 $\mathcal{T}$의 수평의 작대기 위에 놓는다. 피 이전핵은 그 기호로 표시되며, 이전 핵은 괄호 안에 그 성격의 생략 표시, 여기서는 inf. (즉 infinitif: 부정법)를, 오른 쪽에다 놓는다. 그것은 부정법의 표지는 종지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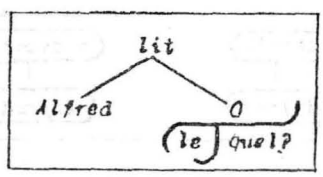



우리는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때는, 이전할 단어를 둘로 잘라서, 그 두 토막을, 위의 그림과 같이, $\mathcal{T}$의 작대기의 이쪽과 저쪽으로 배치할 수 있다.[11]

또 :

**형용사>실명사.** 이전. 피이전 연속핵은 대명사라 불리운다 : 이전 핵은 관사(또는 다른 한정사)이다 :

| 형 용 사 | 대 명 사 |
|---|---|
| Quel livre lit Alfred? | Lequel lit Alfred? |
| (철수는 어떤 책을 읽냐?) | (철수는 어떤 것을 읽냐?) |
| leur livre(그들의 책) | le leur(그들의 것) |
| un maître(한 주인) | l'un(한 사람) |
| tel maître(그런 주인) | un tel(그런 사람) |
| quelque maître(어떤 주인) | quelqu'un(어떤 사람) |
| chaque maître(각 주인) | chacun(=chaque un)(각자) |
| ce livre-ci(요책) | celui-ci(요것) |




[11] Tesnière(1953), pp. 17-18.

대명사와 형용사는 쉽게 구분된다. 형용사는, 보통 부가적 형용사이므로, 언제나 그것이 종속하는 실 명사를 수반한다. 반대로. 대명사는. 이전에 의해서 그 자체가 실 명사이므로, 실 명사를 수반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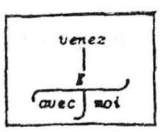
우리는 실 명사로 이전된 형용사에 대해서 대명사라는 명칭을 엄밀하게 유보해 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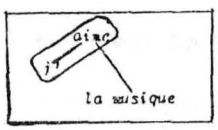
이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결과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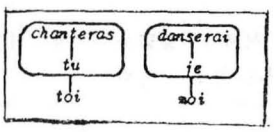
1. 一실 명사화된 품질 형용사는 품질 대명사이다: 형용사: Le livre rouge(붉은 책). 대명사: le rouge(붉은 것).
2. 관계 대명사는, 그것이 이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므로, 대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 실 명**사이다.
3. 그와 동일한 이유로, 인칭대명도 대명사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실사로서의 그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인칭 실 명사이며, 그것은 실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한다: moi(나), toi(너), lui(그), eux(그들), Venez avec moi! (나와 함께 오시오! 나를 따라 오시오!).

반대로, 만일 그것이 그의 자율성을 잃고, 동사에 교착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칭의 지표라고 부르는, **허사**된다: je(나), tu(너), il(그), ils(그들). J'aime la musiqe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Toi, tu chantera(너는 노래하고); moi, je danserai(나는 춤추겠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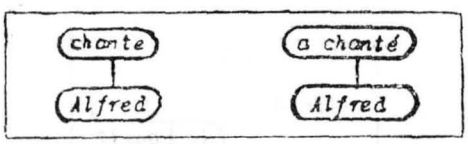



또:

**접합된 핵**(Nucléus Jumlé). Alfred chante(철수는 노래한다)라는 문장에서, 만일 내가 그것을 과거로 놓으면, 나는 Alfred a chanté(철수는 노래했다)라는 문장을 얻는다. 두 경우에는 골격은 모두 같음을 알수 있다. 왜냐 하면 과거 a chanté(노래 했다)를 현재 chante(노래한다) 대신 써도 문장의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a chanté(노래했다)가 단 하나의 핵을 이룸을 유도(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단어가 단 하나의 핵을 이루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들 핵이 **접합**(jumlé)되어 있다고 말한다. 접합된 핵은 원칙적으로 두개의 중심을 갖




[12] Tesnière(1953), pp. 18-19.

는데, 하나는 구조적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적 중심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접합된 핵은 두 단어를 갖는다 : 각각의 단어는 두 중심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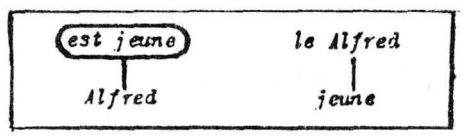
앞에서와 같이, Damourette와 Pichon의 적절한 술어의 발견에 힘 입어, 우리는 구조적 중심을 이루는 단어를 **보조사**(auxiliaire)라고 부르고, 의미적 중심을 이루는 단어를 **피 보조사**(auxilié)라고 부르고저 한다.

**피 보조사**만이 **실사**이다. **보조사**는 **허사**이다. 그것은 **이전어**이다.

사실상, 그것은 **핵 내부적**이다. 접합된 핵은 그것이 내유하는 피 보조사 때문에 실사로 간주된다. 동사의 모든 복합시제는 이 모델(모형)으로 조립된다.

**속사적 형용사**(Adjectif Attribut). 형용사는 보조동사 être의 피 보조사로서 조립될 수 있다. Alfred est venu(철수가 왔다)라고 말하듯 Alfred est jeune(철수는 학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형용사(명사)(jeune(학생))는 **속사**라고 한다.

est jeune(학생이다)라는 무리는 접합된 핵을 형성하며, 그 내부에서 보조동사 est는 형용사(명사)(jeune〈학생〉)을 접합된 동사 est jeune(학생이다)로 변형시키는 **이전어**이다. 속사적 형용사(명사)가 언제나 주체 실명사의 지배어가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격의 동사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 명사의 지배어(Alfred est jeune(철수는 학생이다)로서의 속사적 형용사(명사)는, 정확히 실명사의 종속어(le jeune Alfred(이/그/저 젊은 철수)로서의 부가어적 형용사의, 반대이다.[13]




「특히 유럽의 많은 언어들에 있어서는, 動詞文이라는 틀이 압도적이어서, 屬詞적 문장에까지도 그 틀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 구조적 중심으로서 선택되는 동사가 être《(이)다》動詞이다. 왜냐하면 그 동사는 가장 흔히 상태를 표시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사에다 實名詞적 動詞(verbe substantif)라는 이름을 부친 것이다. 그러므로 속사적 형용사에는 앞의 장에서 문제삼은 순수한 속사적 문장과 그리고 être《(이)다》동사 문장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어떤 다른 언어들은 순수한 속사적 문장을 전혀 모르고, 속사적 형용사를 그 앞에다 實名詞적 動詞를 갖다 놓음으로써만, 만들 수 있다. 불어의 la langue est bonne《그 언어는 좋다》의 경우 및 대다수의 유럽의 제 언어의 경우가 그것이다. (…)

이렇게 사용될 때, 동사 être《(이)다》는 흔히 **連結辭**《copule》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1 主體(prime actant)의 實名詞(substantif prime actant)와 屬辭(attribut)를 연결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실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 여기서 動詞의 기능을 하는 屬詞는 實名詞적 動詞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고, 따라서, 후자는 제1 主體와 속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와 한 몸이 되

[13] Tesnière(1953), p. 8.

어 그 속사의 동사로서의 역할을 표시하는 구실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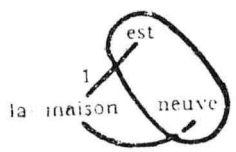
위에 말한 바로 부터 實名詞적 動詞와 그리고 그와 한 몸이 된 屬詞는 **分離된 核**(nucléus dissocié)을 이루며, 그 안에서 實名詞적 動詞는, 그것이 구조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補助辭**(auxiliaire)이며, 屬詞는, 그것이 의미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被補助辭**(auxilié)이다. 사실상, la langue est bonne《그 언어는 좋다》라는 문장에서, 補助辭 est《(이)다》는 문장의 중심으로서의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하고 있으며, 그 반면 被補助辭 bonne《좋》는 제1 主體가 갖는 성질을 표현하는 기능만을 한다. 이 補助적 實名詞적 動詞가 있는 덕택으로, 그렇지 않으면 附加적 形容詞(adjectif épithète)와 조금도 구별되지 않을 形容詞를, 被補助詞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屬詞가 補助動詞 est《(이)다》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경우, 골격(stemma)에서의 屬詞의 위치는 補助動詞의 위치와 일치하며, 따라서, la maison est neuve《그 집은 새집이다》라는 문장의 골격을, est neuve《새집이다》를 같은 위치에다 놓아서, 만드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골격 156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配置는, 그 성격의 차이를 그림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두 요소를 단 한군데에다 집어 넣는 불편을 안개 된다. 그 불편은, 屬詞가 그 자신 또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들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補助辭와 엉켜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그림에 의한 分析을 모두 배제하고, 골격에 의한 표시 그 자체의 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屬詞들을, 그들이 支配하고 있는 主體들과, 동일한 水平의 層位에다 나타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變則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이 變則도 큰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필요시에는, 屬詞를 그것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補助詞와 동일한 核의 원 안에다 집어 넣어서(이것은 屬詞가 主體로 취급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屬詞와 그것이 支配하는 主體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頭語反覆(anaphore)의 點線으로 표시함으로써, 비록 屬詞가 그림상으로는 관계의 線(trait de connexion)이 귀착하는 補助動詞와 뚝 떨어져 있으나, 그 관계가 상존한다는 것을 잘 표시하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主體를 動詞核에 연결시키는 구조적 관계는 올바른 이론에서는 補助動詞에만 귀착된다. 왜냐하면 補助動詞만이 分離된 核에서 구조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골격 157 참조).

골격(Stemma) 156




골격(Stemma) 157

[14] Tesnière(1959), pp. 158-160.

**이전요소**(transférème)와 **두어반복 요소**(anaphorème)에 관해서는 :

관계사에 의해서 이끌어진, 형용사절(구문)은 전통적 용어로 관계절(구문)이라고 불리운다.

사실, 관계사는, 유럽의 대다수의 언어에서와 같이, 불어에서는 복합적 도구이다. 그것은 두 요소를 하나의 단어로 결합시킨다 :

1. **이전 핵**. 그것은 **허사**이며, 이전의 $\mathcal{T}$ 아래에 관계사의 자리를 골격에서 차지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전요소**(transférème)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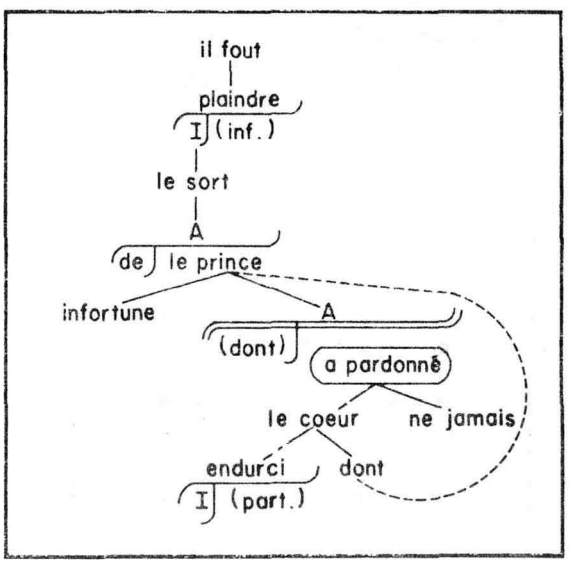
2. **인칭적 지표**. 그것은 **두어반복어**이며, 실명사에 대한 종속의 통상적 위치를 골격에서 차지한다. 우리는 그것을 **두어반복요소**(anaphorème)이라고 부른다.

형용사적 종속에서, 관계사는 그러므로 이론상 골격의 두 다른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 관계사를 두요소로 분석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이 예견될 수 있을 때는 두 위치의 각각에 있는 요소 중 적절치 않은 요소를 괄호로 묶는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전의 $\mathcal{T}$의 밑에 나타나는 관계사를 괄호로 묶는다.

형용사적 종속을 지배하는 실 명사는 선행사라고 부른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실명사가 말의 연쇄에서 형용사적 종속에 앞서기 때문이다. 두어 반복요소는 언제나 그 선행사와 두어 반복적 관계를 맺는다.

두어반복어는 지배에 있어서의 선행사와 같이 종속에 있어서의 모든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제 결합의 변이는 매우 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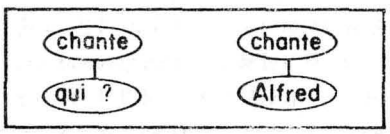
Il faut plaindre le sort du prince infortuné
Dont le coeur endurci n'a jamais pardonné.



(그 완고한 마음씨가 결코 용서할 줄 몰랐던 불행한 왕자의 운명을 애석해 하지 않을 수 없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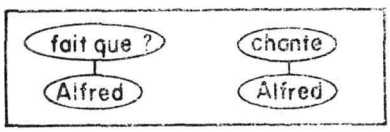
**核 의문**과 **관계 의문**에 관해서는 :

핵 의문(Interrogation Nucleaire). Qui chante? (누가 노래 하냐?)라는 문장에서, 의문은 Alfred(철수)의 뜻이 없는, 그리고 의문사 Qui? (누가?)만이 있는, 종속핵에 집중된다. 이때, 우리는 핵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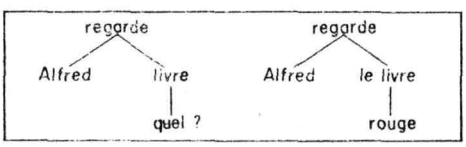

핵 의문은 공핵으로 만들어지므로, 그에 대응하는 대답은 만 핵으로 만들어진다 : Qui chante?(누가 노래하냐?)—Alfred charnte (철수가 노래한다). 문장의 여타 요소를 되풀이하지 않고, 핵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Qui chante?(누가 노래 하냐?)—Alfred (철수가).

Que fait Alfred? (철수는 무엇을 하냐?)라는 문장도 역시 핵 의문이다. Que fait Alfred? (철수는 무엇을 하냐?)—Alfred chante (철수는 노래한다). 또는 단순히 : Il chante (그는 노래한다). 유일한 차이는 의문이 이번에는 지배핵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이다.




요약하면, (철수는 노래한다)라는 문장은 두 핵을 지니고 있어서, 두개의 핵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문장은, 그 문장이 갖는 핵의 수 만큼의 핵 의문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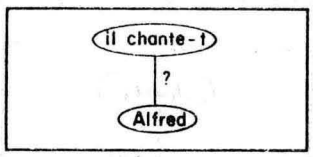
핵 의문들은 의문사로써 만들어지며, 그 주요한 것들을 들면 : 주체에 대해서는 : qui? (누가?) -que? (누구를) -quoi? (무엇을?) 상황에 대해서는 : où? (어디?) quand? (언제?) -comment? (어떻게?) -pourquoi? (왜?)




[15] Tesnière(1953), pp. 25-26.

부가적 형용사에 대해서는 : quel? 어떤(어느)? 예컨대, Quel livre regarde Alfred? (철수는 어떤 책을 보느냐?) Alfred regarde le livre rouge (철수는 붉은 책을 본다) 또는 간단히 : Le rouge (붉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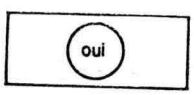
**관계의문**(Interrogation Connexionnelle) Alfred chante-t-il? (철수는 노래 하냐?) 라는 문장에서, 두 핵 Alfred(철수)와 chante(노래하다)는 **만핵**이다. 의문은 따라서 핵 의문이 아니라 실제로(사실상) Alfred(철수)와 chante(노래하다)라는 동작은 (이미) 주어져 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들 두 개념이 과연 연관관계에 있는가, 즉 그들간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의문은 그러므로 관계에 집중된다. 우리는 이때 관계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관계의문은 불어에서, 제 1 주체를 가 주어 Il(그)의 형태로 동사 뒤에다 되풀이하는 (순서의) 전도(inversion)를 사용하여, 표시된다 : Alfred chante-t-il? (철수는 노래하냐?). 더 흔한 절차는 문장앞에다 Est-ce-que라는 접합군(응결군)을 선행시키는데 있다 : Est-ce qu'Alfred chante? (철수는 노래하냐?).

관계 의문은 **만핵**으로 만들어 지므로, 그에 대응하는 대답은 **공핵**으로 된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단어로써 충분하다 :

oui (네), non (아니오), si(네 : 부정의문에 대한 긍정적 대답) : oui (네)는 :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non(아니오)는 :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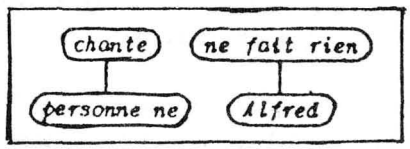



요약하면, Alfred chante (철수는 노래한다)라는 문장은 세개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 두개는 핵 의문이고 하나는 관계 의문이다. 이것은 관계라는 개념의 실재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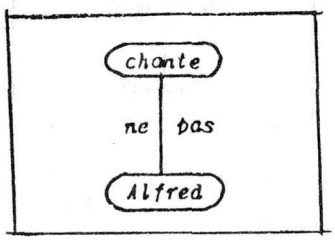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출발항**(discordantiel)과 **도착항**(forclusif)에 대해서는 :

(…) 의문에 대해서 말한 것은 부정에도 해당된다. 즉 부정은 핵 **부정**일 수도 있고 관계 부정일 수도 있다. Personne ne chante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다), Alfred ne fait rien (철수는 아무것도 안한다)에서 우리는 **핵부정**을 가진다. 핵 부정은 부정사로 만들어진다. 그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6] Tesnière(1953), p. 6.




주체에 대해서는 : personne(아무도), rien(아무것도)
상황에 대해서는 : nulle part(아무데도), jamais(결코), en aucune façon(결대로).
부가적 형용사에 대해서는 : aucun(아무).
반대로, Alfred ne chante pas(철수는 노래하지 않는다)에서, 우리는 관계 부정을 갖는다. 관계부정은 불어에서 ne와 pas의 두 단어로써, 왜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Damourette와 Pichon은 ne와 pas에다 적절하게도 **출발항**(discordantiel) (ne)과 **도착항**(forclusif) (pas)이라는 명칭을 붙였거니와 이는 술어로서 훌륭하여 추천할만 하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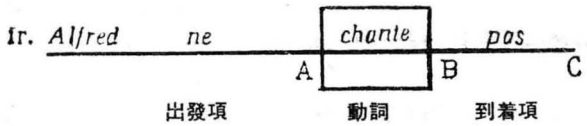
「出發項(discordantiel 》不協和》)은 그 홀로는 否定을 못 이룬다. 단지 否定을 **準備**할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否定을 實現하는 것이 到着項(forclusif《協和》)이다. 이 조직은 不協和(dissonance)와, 그것의 協和(consonance)로의 합류로 이룩되는 음악 전반에 비교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否定은 肯定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곧, 문장의 내용을 否定하기 전에, 정신은 우선 그것을 肯定하고, 이어서 그것을 否定할 수 있게됨 을 뜻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바로 出發(décrochage)이 존재한다. 내가 가령 : Alfred ne chante pas(철수는 노래를 안한다)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의 생각을 Alfred chante(철수는 노래한다)라는 문장으로 부터 出發시킨다.
그런데, 다대수의 언어에 있어서는, 언어에 따라서, 主節動詞의 앞 또는 뒤에다 단 하나의 표지를 써서 이 작업을 한다. 그런데 불어에서는 그것을 두번의 때로 나누어서 한다. 우선 肯定의 개념으로 부터 그 思考를 出發(décrocher)시켜서 그것을 否定의 개념으로 終着(raccrocher)시킨다. 이것은 否定의 度에 **뉘앙스**를 가져 온다. **出發**작업을 하는 것은 **出發項**(discordantiel)이고, **終着**을 나타내는 것은 **到着項**(forclusif)이다.

앞에 말한 바로 부터, 말의 連鎖위에서, **出發項**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到着項** 앞에 놓인다(…). 왜냐하면, 이미 出發되지 않은 것을 到着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17] Tesnière(1953), pp. 6-7.

사실, 出發項은 보통 중심 核動詞의 앞에 놓이며, 到着項은 그 動詞의 뒤에 놓인다. 중심 核動詞는 따라서 양쪽에서 둘러 싸여, 한편으로는 出發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到着項 사이에 놓이게 된다.




위 문장에서, 우리가 出發項 ne(否定$_1$)를 이미 발음하여, 말의 連鎖의 A지점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出發**작업을 했다. 그러나 아직 到着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금 뒤에 B지점에서, 우리가 動詞 chante(노래하다)를 발음할 때, 우리는 이미 그 出發이 무엇에 적용되는지를 알며, 생각과 Alfred chante(철수는 노래한다)라는 개념 사이에 하나의 **不協和**(discordance)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궁극의 協和(到着點)는 아직 **모른다**.

그리하여 문장의 끝, C지점에 도달하여, 우리가 到着項을 발음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零으로 끝나는 **到着**에 관하여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Alfred chante(철수는 노래한다)라는 문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이 문장의 완전하고도 전적인 否定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므로 出發項은 주어진 문장의 내용에 대한, 정신의 **부적합함** 이상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出發項은 어떠한 문장의 내용에 생각이 정확히 동의할 수 있으며, 그 부적합함을 말소할 일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의 유예를** 두게 한다.[18]

위에 열거한 "짝"들 가운데서, 설명의 편의상, 첫번째로 : ① 出發項(=否定$_1$)(discordantiel)/到着項(=否定$_2$)(forclusif), ② 出發·到着連續項(=否$_1$·否$_2$ 連續否定=否定), 의 "짝"을 뽑아서, 앞에서 행한 바와 같은 公式을 만들면 :

**(Ⅰ) 出發項(=初=否$_1$·否$_2$ 單一 否定=否定)적/二重運動(=移轉=分析)적 連續體 :**

"出·項(=初=否$_1$/否$_2$)($^{1}\!\diagdown\!\diagup^{2}$ 및 $_{2}\!\diagup\!\diagdown_{1}$ 즉 $^{1}\!\diagdown\!\diagup^{2}_{2}\!\diagup\!\diagdown_{1}$)=出·到 連續項$_1$(=中$_1$=否定$_1$)($_{2}3_{1}$)+出·到 連續項$_2$(=中$_2$=否定$_2$)($_{2}3_{1}$)", 즉 : ($^{1}\!\diagdown\!\diagup^{2}_{2}3_{1}$),

과 같이 되며,

[18] Tesnière(1959), pp. 224-225.

(Ⅰ)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分析/非分析'의 짜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1) "出·項(=初=否$_1$/否$_2$)( 및 즉 )=出·到 連續項$_1$(=中$_1$=否定$_1$)()+出·到連續項$_2$(=中$_2$=否定$_2$)( )", 즉:();

2) "出·到連續項$_1$(=中$_1$=否定$_1$)()=出 項(=初=否$_1$/否$_2$)( 및  즉 )+出·到連續項$_2$(=中$_2$=否定$_2$)()", 즉:(),

과 같이 된다.

**(Ⅱ) 出發·到着 複合項(=中=否$_1$·否$_2$ 複合否定=肯定)적/脫二重運動(脫移轉/脫分析)적 連續體:**

**"出·到 複合項(=中=肯定)()=出項(=初=否$_1$)()+到 項(=終=否$_2$)()**", 즉:(),

과 같이 되며(***주의**: 앞 〈p. 463, p. 466 해당항 참조〉과는 달리 **中**이 **左/右**의 **첨가**로 되어 있음은, **中**을 향한 **上/下**, **左/右**의 **恣意적=等方向적 첨가체**로서의 성격을 나타냄에 **주의**),

(**Ⅱ**)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非分析/分析'이 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1) "出·到 複合項(=中=肯定)()=出項(=初=否$_1$)()+到項(=終=否$_2$)()**,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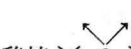
**2) "出項(=初=否$_1$)()=到項(=終=否$_2$)()+出·到 複合項(=中=肯定)()**", 즉:(),

과 같이 된다.

위 첫번째의 "짝"에 이어서, 그 첫번째의 "짝"에 準하여, 두번째로: ① 移轉核(translatif)/被移轉核(transférende), ② 移轉·被移轉連續核(transféré), 의 "짝"을, 앞서와 같이 公式으로 표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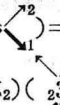
**(Ⅰ) 移轉(初=移轉·被移轉 單一核=移$_1$·移$_2$ 單一移轉=移轉)적/二重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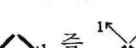
**動적(=分析적) 連續體 :**

"移核(=初=移$_1$/移$_2$)() 및  즉,  )=移 · 被移 連續核$_1$(=中$_1$=移轉$_1$)( )+移 · 被移 連續核$_2$(=中$_2$=移轉$_2$)( )", 즉 : ( ),

과 같이 되며,

(Ⅰ)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分析/非分析'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

1) "移核(=初=移$_1$/移$_2$)( ) 및 즉 )=移 · 被移 連續核$_1$(=中$_1$=移轉$_1$)( )+移 · 被移 · 連續核$_2$(=中$_2$=移轉$_2$)(  )", 즉 ( );

2) "移 · 被移 連續核$_1$(=中$_1$=移轉$_1$)( )=移核(=初=移$_1$/移$_2$) () 및  즉  )+移 · 被移 連續核$_2$(=中$_2$=移轉$_2$)( )", 즉 ( ),

과 같이 된다.

**(Ⅱ) 脫移轉(中=移轉 · 被移轉 複合核=移$_1$ · 移$_2$ · 複合移轉=被移轉)적/脫二重運動적(脫分析적) 連續體 :**

"移 · 被移 複核(=中=被移轉)( )=移核(=初=移$_1$)( )+被移核(=終=移$_2$)( )", 즉 : ( ),

과 같이 되며(*주의 : 앞(p. 478) 주의항 참조),

(Ⅱ)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非分析/分析"의 짝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면 :

1) "移 · 被移 複核(=中=被移轉)( )=移核(=初=移$_1$)( )+被移核(=終=移$_2$)( )", 즉 : ( );

2) "移核(=初=移$_1$)( )=被移核(=終=移$_2$)( )+移 · 被移 複核(=中

=被移轉)( $\begin{smallmatrix} \searrow & \swarrow \\ {}_1 3_2 \\ \nearrow & \nwarrow \end{smallmatrix}$ )", 즉 : ( $\begin{smallmatrix} 1 \searrow & \swarrow 2 \\ {}_1 3_2 \\ 1 \nearrow & \nwarrow 2 \end{smallmatrix}$ ),

과 같이 된다. 따라서, 이미 위의 "통사론/형태론/비교(=連結)"라는 개념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移轉核/被移轉核/移轉·被移轉連續核"이라는 TESNIÈRE의 개념은, **단순히 그것으로써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I) 移轉적/二重運動적(分析적) 連續體의 公式( $\begin{smallmatrix} 1 \nwarrow & \nearrow 2 \\ {}_2 3_1 \\ 2 \swarrow & \searrow 1 \end{smallmatrix}$ 과 (II)의 **脫移轉적/脫二重運動적(脫分析적) 連續體의 公式**( $\begin{smallmatrix} 1 \searrow & \swarrow 2 \\ {}_1 3_2 \\ 1 \nearrow & \nwarrow 2 \end{smallmatrix}$ ), 에서와 같은, **상호배타적인 공존/連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TESNIÈRE의 다른 모든 "짝"들도, 이와 같은 公式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계속).

***보충사항** : *앞(p. 458)의 GUILLAUME **著書目錄**의 2) **講義錄**④에 : Gustave GUILLAUME,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language*** (Excerpts from the manuscripts translated by) Walter HIRTLE & John HEWS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Philadelphia, 1984, 를 **보충**함 ; *그 책의 pp. 167-170을 앞(p. 457)의 註(51)에 **보충**함.

## RÉSUMÉ

### Les Traditions Linguistiques Françaises et la Linguistique de Copenhague: Analyse et Comparaison Théorique

Hyong-Dal, Pak

Le but de cet article est de chercher à établir les coordonnées précises des deux théories désignées ici pour commodité: 1) la théorie ***génétique***(= non arbitraire=essentiellement formelle/morphologique) comprenant la théorie de GUILLAUME et celle de TESNIÈRE, appartenant aux ***traditions linguistiques françaises***, et 2) la théorie ***arbitraire*** (=non génétique= essentiellement lexicale/syntaxique) appartenant(comprenant) à ***la linguistique de Copenhague*** (la théorie de HJELMSLEV et celle de BENVENISTE).

Pour ce faire, nous adoptons la théorie(1) supposés comme principal auquel (par lequel) est subordonnée(exclue) la théorie(2). Toutefois, nous ne suivons pas aveuglément la théorie(1), mais en pénétrant dans le fon-

dement même caché sous l'apparence contradictore de la théorie(1), nous le remanions de telle façon qu'elle soit parfaitement ***morphologique/formelle***, rendant ainsi possible à classer la théorie(2) comme nettement ***syntaxique/lexical***.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